

녹용의 원칙을 세우다

116년 정관장 장인정신이 만든 고집스런 원칙.
 지름길은 없습니다. 바른길로 갑니다.
 녹용도 예외는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녹용의 원칙, 정관장이 만들어 갑니다.

소비자가격 450,000원 (180g×2병)
* 녹용농축액 10.12%(고형분 16% 뉴질랜드산)

올해 만큼은, 당신께 만큼은
**정관장
추석맛이 대축제**
 ▶9/4(금)~9/28(월)

- 선물용 제품 10% 할인**
 선물세트 전 품목, 황진단(12환, 30환),
 홍삼정에브리타임(30포), 홍삼تون골드(30포),
 홍삼톤마일드(60포), 알파프로젝트(5종)
- 천녹삼 구매시**
 30g, 2병 증정
- 동인비 구매금액대별 할인**
 13 / 18 / 25만원 이상 구매시 1 / 2 / 4만원 할인
- 신규 멤버스 가입시 사은품 증정**
 홍이장군 목쿠션 또는 정관장 장바구니

unicef 수익금 일부는 유니세프에 기부됩니다

‘정리해고’ 17년만에 ‘일반해고’… 법제화까진 ‘산 넘어 산’

〈IMF 외환위기때 도입〉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사무실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왼쪽)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정 대표자회의 노동시장 개혁 합의 주요 내용			
일반해고	1 노사 및 전문가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취업규칙 변경요건	1 임금피크제 개편을 비롯한 취업규칙 개정 위한 요건과 절차 명확화
	2 공정평가 체계 구축,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기준과 절차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함		2 정부는 노사와 충분한 협의
	3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	청년고용	1 청년고용 확대 기업에 세무조사 면제 우대 등 지원 강화
비정규직 사용기간 · 파견근로 확대 등	1 노사정 공동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등으로 대안 마련		2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재원 청년고용에 활용
	2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반영		3 고소득 임직원 자율적으로 임금인상 자제

노사정 ‘노동개혁’ 잠정합의

‘일반해고’ ‘취업규칙’ 등 2대쟁점 타결

1년여 만에朴정부 ‘노동개혁’ 첫발 때

오늘 한국노총 중집… 통과돼야 효력

‘8대 8’ 與野 동수…한노위 통과도 복병

노사정이 1년여 만에 대타협안에 극적 합의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개혁이 드디어 첫발을 떼게 됐다. 정리해고를 법제화한 1998년 이후 17년 만의 노동개혁 합의다. 하지만 ‘쉬운 해고’에 대한 야당과 노동계 내부의 반발이 여전한 데다 노사 합의 사항이 많아 최종 입법화까지는 험로가 예고된다. 특히 한국노총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 논의라는 경정적인 변수도 남아 있다.

◇일반해고·취업규칙 쟁점 타결…노사정 대타협 극적 합의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오후 6시께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화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한국노총은 “노사와 충분히 협의한다”는 정부의 수정안을 수용할지를 두고 격론을 벌였지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노총을 직접 방문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전화를 걸어 설득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노사정은 우선 저성장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에 대해서 노동계가 주장해 온 대로 중장기적으로 법제화하고 그 전까지는 정부의 주장대로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또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는 법과 판례에 따라 분명히 규정하고 노사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못 박았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도 약용되지 않도록 행정지침을 통해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때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고용에 활용하기로 했다.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서는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 사항은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합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 편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장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장관은 “정기국회 회기 내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5대 개혁 입법과제들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야당과 노동계 반발 여전…최종 합의까지는 ‘산 넘어 산’ = 노사정 대표들이 13일 노동시장구조개

선을 위해 뜻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한국노총의 내부 인준 절차를 거쳐야 사실상 대타협을 선언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14일 오후 열리는 한국노총 중집 회의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산별연맹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한국노총 임원 52명으로 구성된 주요 정책 결정기구다. 이번 노사정 대타협 초안은 중집을 통과한다면 노사정 대타협 안은 비로소 효력을 갖지만, 만약 합의안이 거부되면 노사정 대타협은 무산된다.

현재 한국노총 지도부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은 것은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에 대응할 근거가 된다”면서 중집 통과를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 내부 화학, 금속, 공공부문의 산별 노조는 여전히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하고 불리한 사규가 도입될 경우 곧바로 추진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감한 쟁점을 노사 협의로 해결하기로 하면서 잠정 합의안이 한국노총 중집을 통과해 노사정 본위원회에서 대타협을 선언한다 해도 세부적인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사업장에 따라 소송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이 맡고 있는 데다 한노위 여야 구성도 8대 8 동수라는 점에서 법안 심의 과정도 쉽지 않아 보인다.

전민정 기자 puri21@

향후 과제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파견근로 확대’ 불씨 여전

통상임금 등 65개 쟁점 큰 틀 잡혔지만
“노동조건 악화의 수단 우려” 진통 예상

노사정 4인 대표는 13일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핵심 쟁점 외에도 임금체계 개편·통상임금 등 65개 쟁점사항에 대한 대타협 초안에 합의했다. 노동개혁의 큰 틀이 잡히면서 입법화 등 추진동력이 확보된 셈이다.

노동개혁의 로드맵은 쉬운 개혁부터 달성한 후 법·제도 등 논의가 어려운 개혁의 해법을 찾아나가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통상임금 범위’와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강화’, ‘출퇴근 재해 산재 적용’ 등은 이미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져 있어 당장 입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사정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했다.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금품’은 제외하고 이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고 최대 주 68시간까지 늘어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정상근로+연장근로)으로 줄여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을 급격히 추진하면 임금 하락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기업 규모에 따라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처럼 ‘통상임금 범위·근로시간 단축·실업급여 강화’ 등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노사정 간 이견이 존재하는 ‘비정규직 사용기

향후 노동개혁 주요 논의 과제

통상임금	임금구성 단순화와 지급요건 명확한 기준 입법화
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기업 규모별로 2017년부터 4년간 단계적 적용
파견 근로	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용접 주조 등 일부 제조업 파견 허용
기간제 근로	35세 이상 근로자 2년 → 4년으로 연장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수율, 실직 전 임금의 50% → 60%로 인상, 지급기간 최대 270일로 연장
산재보험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간’과 ‘파견근로 확대’는 이번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신 노사정 공동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두고 노사 간에 입장차가 분명했던 만큼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한국노총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만 더 늘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파견 근로자 확대도 합의안 마련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 용접·주조 등 일부 제조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파견 근로자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조건 악화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전민정 기자 puri21@

대타협 어떻게 이뤄졌나

政 ‘일방적 시행 안한다’ 문구… 勞 받아들이

합의안 마련… 정부·노동계 한발씩 양보

노사정위원회가 논의의 핵심 쟁점이었던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안을 성공적으로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계와 정부가 ‘양보 미덕’을 발휘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일반해고란 일반적으로 저성장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을 일컫는데, 현행 근로기준법상 ‘징계해고’나 ‘정리해고’만 있을 뿐 일반해고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그런데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노총은 당초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로 검토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기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판례 등에 기초해 조속히 만들자”는 입장이었다.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절충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해고와 관련해 노동계 입장을 반영,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넣은 것.

또 정부 입장에 반영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문구를 집어넣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다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대해서도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의 절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소강된 것은 아니다. 입장차가 상당했던 만큼 타협안의 내용도 모호한 측면이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부미 기자 boom@

보름달처럼 풍요로운
숨37°추석선물세트

올 추석엔 기다린 시간만큼
피부에 깊은 감동을 주는
숨37°추석세트를 선물하세요

2015 NEW 시크릿 에센스 세트 80,000원

NEW 시크릿 에센스 80ml

- 시크릿 리메이 터너 20ml (중정용)
- 시크릿 리메이 터 에멀전 20ml (중정용)
- 소니세이버 클렌징폼 40ml (중정용)
- NEW 시크릿 에센스 런칭 스페셜 럭셔리 카드 지갑 (중정용)

플로리스 3종 세트 200,000원

플로리스 스킨 150ml 플로리스 에멀전 130ml
플로리스 크림 20ml

- NEW 시크릿 에센스 30ml (중정용)
- 플로리스 스킨 20ml (중정용)
- 플로리스 로션 20ml (중정용)
- 플로리스 에센스 10ml (중정용)
- 플로리스 크림 7ml (중정용)
- 플로리스 아이크림 4ml (중정용)

아름다운 자연 발효 숨37°

su:m 37°

기업 홍보수단 전략한 창조경제대회

아이디어 발굴해 경제활력 목적 불구
수상경험·기술력 검증 기업 賞 싹쓸이
창업 3년내 기준...업체명 바뀌 참여도
일반 국민 도전의지 꺾어 역효과 발생

정부가 창조경제 활성화와 신규 창업자 지원을 위해 마련한 각종 창업경진대회, 공모전이 기존 기업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미 수상 경합이 있거나 기술력을 검증받은 업체들이 출품해 입찰하면서 일반인들의 도전 의지를 꺾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14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래부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창조경제대상' 대회를 열었다. 수상 팀에는 상금과 함께 창업 지원 혜택이 몰리자며, 홍보 효과도 톡톡히 누릴 수 있다.

이 때문에 '2014 창조 아이디어 경진대회'에는 1291개 팀이, '2015 아이디어·창업경진대회'에는 3103개 팀이 참가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정부는 각각 10개 팀과 12개 팀을 선정해 총 2억5000만원과 1억70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창업을 지원했다.

창조경제대사 대회 주요 입상 업체와 과거 이력		
참가업체	수상 내역	과거 이력
(주)미로	'2015 아이디어·창업경진대회' 금상	-2013년 서울 국제발명대전 수상과 동상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굿 디자인' 인증
		-KES(한국 전자산업대전)과 제네바 국제발명대전,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입상
(주)엔에스테크놀로지	'2015 아이디어·창업경진대회' 입상	-글로벌 경쟁력 갖춘 지오노트(2006년 설립)라는 회사가 이름만 바꿔 출전
(주)크레토이	'2014 창조 아이디어 경진대회' 입상	-2011년 중소기업청 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 거쳐 기술력 검증
이커드로우	'2015 아이디어·창업경진대회' 입상	-2013년 과학창의재단 청년프린터에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해 최종 A 등급 획득

문제는 입상 팀의 면면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 창업을 지원한다는 애초 목표와는 달리 입상 팀 상당 수가 이미 기업을 운영 중이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여러 대회에서 수상 경험까지 있었던 곳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회 참여 기준이 '창업 3년 이내, 동일 아이디어·기술로 받은 누적 상금 3000만원 이내'로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2015 아이디어·창업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가습기 업체(썬비로)는 2013년 서울 국제발명대전 은상과 동상을 수상하고 같은 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코 디자인' 인증을 받았다. 2014년에는 KES(한국전자산업대전)와 제네바 국제발명대전,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등에서 입상했고, 올해는 특허기술상 디자인부문에서 정양용상을 수상했다.

또 올해 같은 대회에서 입상한 아티크로우사는 2013년 과학창의재단 청년 프랜차이즈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해 최종 A등급을 받았고, '2014 창조 아

이더이 경전대회에서 입상한 ㈜크레토이는 2011년 7월 중소기업청 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을 거쳐 기술력을 검증받았다.

참여 업체 이력 검증도 허술해 올해 입상한 (주)엔엑스테크놀로지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오노트(2006년 설립)라는 회사가 이름만 바꿔 참가했는데도 주최 측은 문제 삼지 않았다.

우상호 의원은 "아마추어 발품을 통해 창조경제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공모전의 취지인데, 실제로 일부 기업과 출전자들이 상을 독점하는 상황"이라며 "창의적 아이디어만으로 기업을 이끌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돼 일반 국민의 도전의지를 무너뜨리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미래부는 대회 실적 내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와의 정보공유를 통해 대회의 취지를 살리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익중 기자 zerg@

최하위 등급 장기요양기관 퇴출

지자체 거주 노인수 등 설립기준 까다롭게
담보대출 한도 규정 없애 시설난립 방지도

최근 장기요양시설이 급증한 가운데 정부 평가에서 여러 번 기준 미달 평가를 받은 요양시설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시행 중인 요양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앞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전국구의 재가·시설 장기요양기관은 지난 △ 2010년 1만228곳 △ 2011년 1만857곳 △ 2012년 1만730곳 △ 2013년 1만1066곳 △ 2014년 1만6643곳으로 급증했다.

신규만 하면 요양기관을 개원할 수 있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것. 그럼에도 장기요양기관을 관리·감독할 별도의 법 규정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정부는 법 제도를 만들어 요양시설 설립 기준을 지금보다 까다롭게 바꾸려는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거주 노인 수 등을 요율에 따라 설립에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요양시설 난립을 막기 위해 요양시설 설립 시 담보대출 한도 규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은 요양시설을 세울 때 담보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설립 자금이 부족해도 은행에 도움을 받아 쉽게 기금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을 세울 경우 담보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데, 정부도 이 기준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무분별한 요양기관 설립을 막기 위해 담보대출 한도 규정을 없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 부담청구 액수는 2009년 32억원에 지 나는데 178억으로 급증했다. 거동·의사표현 등이 힘든 노인들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를 허위로 청구하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숙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데려와 급여를 부담청구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일부 장기요양기관이 재무회계 자료를 거짓으로 꾸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문제점을 파악, 이를 해결할 제도도 마련 중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이 없어 재무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 김부미 기자 boom@

이번 기회에 재취업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4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5 중장년 채용하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찾아주고, 대기업이 양성서 협력사의 우수인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이날 오전 행사장을 찾은 구직자들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수입·소비·투자·금융부문 급제동...‘신창타이 시대’ 진입
상의 “中경제 4단 브레이크...변화 모색할 때”

최종재 수출 강화 등 4대 전략 제시

중국 경제에 4단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진단이 나왔다. 수입·소비·투자·금융 부분의 급제동으로 중국판 뉴노멀(New Normal)인 '신장태'(新常態)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對)중 시장방화도 적극적 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발표한 '중국경제 신장태이 시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연구' 보고서에서 "세계경제를 견인하던 2010년과 비교해 중국의 내선 수입증가율은 22.1%에서 14.9%로 7.2%포인트 떨어지고 소비증가율은 9.4%→7.7%, 투자는 15.3%→4.7%로 각각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장상의 신장태이 4대 수출 전략으로 △자녀인 인사이드에 대비한 최종재 수출 강화 △대륙의 지갑을 열 맞춤형 제품 △소매·이·인프라 시장 공략 △가려져 금융 리스크 편인 강화를 제시했다.

자이나 인사이드는 중국이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해 중간재 수입을 자국산으로 대체하겠다는 뜻이다. 중간재가 대중 수출의 73%를 차지하는 우리 기업엔 큰 위협이다. 2000년 64.4%이던 중국의 중간재 수입비율은 2010년 52.1%, 2014년 49.8%로 떨어졌다. 15년간 14.6%포인트의 수입대체가 진행됐다.

대한상의는 “중간재 위주의 수출구조를 소비재·자본재 등 최종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신물시장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선 중국 내 소비 감소도 지적했다. 최근 4년 새 중국 내 자동차 판매증가율은 32.4%에서 6.8%로 25.6%포인트 감소했다. 가전은 15.0%포인트(18.0%→3.0%), 의류는 13.2%포인트(24.8%→11.6%) 각각 빠졌다. 송의영 서강대 교수는 “중국경제 소프트 랜딩은 투자에서 소비로의 전환에 달려있다. 우리 기업도 소비재·서비스 혁신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범근 기자 nova@

👏 칭찬합시다 문희상 의원이 추천한 서청원 의원

“온유하면서도 통과 품이 큰 사람”

“새누리당 서정원 의원은 한국 정치사 고비마다 만만장파 파드너였는데 포용력이나 관용이라는 정치인의 덕목을 보였노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서정원 의원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5선의 문 의원은 7선의 서 의원과 김영삼 정부 때부터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했다고 회고했다. 당시 재선이었던 문 의원은 제1야당의 이기택 당 대표의 비서실장으로서, 서 의원은 김영삼 정부의 초대 정부 비서관으로 만나 조율이 내려온 했다. 문 의원은 “그런 인연으로 이후로도 계속 정치적 파드너 관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상대당과 물밑 접촉을 하곤 했는데 내가 대통령 정부수석하고 비서실장 할 때는 반대로 서 의원이 당에서 파드너로 나오기도 하는 등 상황이 바뀌었다”고 서 의원과의 인연을 되짚었다.



비리공무원에 103억 성과급 잔치

최근 5년… 경찰청 80억 최다

정부가 지난 5년간 비리·비위 공무원에게 100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정부부처 48곳의 '징계 공무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6월 말까지 정부부처 29곳에서 징계가 결정된 공무원 4269명에게 총 103억 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이 중 국무조정실, 감사원, 국민권익위,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7개 기관은 관련 자료를 제출도 하지 않았다.

여기서 '징계 공무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란 전년도 평가 기간에 징계 결정이 있었는에도 금년도에 성과급을 지급한 것을 말한다.

징계 유형별로는 강등 징계를 받은 공무원 203명 중 20명에게 1인당 평균 152만원씩 총 3000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됐다.

강등은 파면·해임 다음의 중징계로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2를 감할 정도로 징계 수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지급된 것이다.

또한 징계 징계를 받은 공무원 1190명 중 129명에게 1인당 평균 200만원씩 총 2억5715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됐다.

부처별로는 징계 공무원 5634명 중 60%인 3338명에게 총 80억8960만원 성과급 지급한 경찰청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국민안전처로 징계 공무원 588명 중 70%인 409명에게 1인당 평균 210만원씩 총 8억8250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3위는 징계 공무원 653명 중 24%인 158명에게 1인당 평균 220만원씩 총 3억4500만 원을 지급한 국세청이 차지했으며 이후 농촌진흥청,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비리·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국민 혈세가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어 즉시 관련 규정을 점검해 성과급 지급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희준 기자 h9913@

190만명 개인정보 '다 털린 뽐뿌'

미래부·방통위, 원인조사 착수… 취약점 보완 기술지원

국내 대표적인 휴대폰 소액 정보 커뮤니티 사이트인 '뽐뿌'(www.ppomppu.co.kr)가 해킹으로 190만명의 아이디, 생년월일, 비밀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정부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원인조사와 함께 2차 피해 예방에 나섰다.

▶9월 11일 이투데이 온라인 단독보도 14일 정부와 뽐뿌 등에 따르면 뽐뿌는 이날 11일 회원의 계정 해킹으로 모든 회원의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e-메일, 뽐뿌닉네임, 암호화된 장터 비밀번호, 가입일, 회원점수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가입 시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일체의 유출이 없었다는 게 뽐뿌 측

의 설명이다.

뽐뿌는 지난 2005년 11월 개설된 휴대폰 소액 정보 전문 커뮤니티 사이트로 회원수가 190여만 명이다. 이번 해킹으로 가입된 모든 회원의 개인정보가 빠져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뽐뿌 홈페이지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미래부와 방통위는 각 소속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한근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정부와 민간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뽐뿌의 해킹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고,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

무리할 계획"이라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침해사고 원인 분석과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에 악용된 취약점 등을 보완·조치 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미래부는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피싱·피싱 등 2차 피해예방을 위해 이용자 사이버사기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사이버사기 대처 요령은 보호나리(www.boho.or.kr)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방통위는 뽐뿌로 하여금 누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 시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용자의 조치 방법, 이용자 상담 등을 접수 할 수 있는 부서와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통지토록 했다. 양창균 기자 yangck@

정준양 내일 네번째 소환… 구속영장 검토

윤석만 前 회장도 참고인 조사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에 머물렀던 '포스코 비리' 수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네번째 불러 조사하는 한편 정 전 회장과 회장직 선임을 놓고 경쟁했던 윤석만(67) 전 포스코건설 회장도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정 전 회장을 15일 오전 10시에 조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조사 초기 성진지오텍 부실인수 건을 추궁한 검찰은 최근 불거져 나온 포스코 협력업체 비리 연루 정황을 깨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외주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검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

정이다.

검찰은 또 지난주 2009년 당시 포스코 회장 자리를 놓고 정 전 회장의 라이벌로 꼽혔던 윤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윤 전 회장을 조사하면서 이번 수사가 이명박 정부 실세들이 최종 목적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12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의혹을 파헤치던 검찰은 전 정권 인사들이 정 전 회장이 취임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좌영길 기자 jy97@

조상을 향한 마음…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을 2주 앞두고 있는 13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마리 공원묘지를 찾은 가족이 별초를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세월호로 부모 잃은 아동에 건보료 부과

복지부, 논란 일자 관련법 시행령 개정

보건당국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 부모를 잃은 아동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가 논란이 일자 관련법을 고쳐 보험료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세월호 사고로 부모가 희생되고 홀로 남은 7살 여자 아이 A양과 9살 남자 아이 B군에게 건강보험료를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부모 없이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단독가구라도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대상자'로 건보

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조항에 근거해 건보공단은 세월호 희생자 A양과 B군이 비록 소득은 없지만, 재산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료를 부과했다. A양과 B군은 숨진 부모가 유산으로 남긴 집 등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전혀 없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처지였다.

아동들에게 건보료를 매긴 데 대한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즉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입법에 고하고, 공포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가 비록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뒀다. 김부미 기자 boomi@

8년간 수출가 담합 의혹 일본기업, 한국법정 선다

한국 시장 진출 가격을 담합한 일본 업체가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외국업체끼리 외국에서 담합한 사건을 한국 검찰이 기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일본의 베어링 제조업체 '미네베아'와 한국 판매법인 '한국엔앰비'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네베아는 2003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동종업체 '일본정공'과 짜고 삼성전자·엘

지전자 등 국내 거래처에 납품하는 소형베어링 가격을 합리적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시장에서 소형베어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을 기준으로 미네베아가 56.3%, 일본정공이 24.2%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미네베아 고위 임원을 일본에서 불러 조사했고, 일본정공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적용받아 처벌을 피했다.

좌영길 기자 jy97@

‘1세대 기업사냥꾼’ 이성용 2심서 형량늘어 징역 5년

회사돈을 횡령해 다른 업체 인수·합병을 시도한 '1세대 기업 사냥꾼' 이성용(52)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합계 기소된 임원희 전 대한은박지 대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자금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회사를 인수한 뒤 인수한 자산을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용해 회사와 주주, 종업원과 채권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며 형 가중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면서 "임 전 대표가 회사에 입힌 손해가 현재까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이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06년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에도 대한은박지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임 전 대표와 공모해 회사 주식을 담보로 수신탁원을 대출받았고, 결국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축전지·물류산업에 기여해온 세방그룹

이제 사회와 상생을 생각하는 새로운 50년을 열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와 희망을 나누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상생의 길을 걸어하겠습니다

| 에너지 | 세방전지(주) · 세방산업(주) | 물류 | 세방(주) · 세방인스트레스(주) · 한국해운(주) · C&D Global · C&L Global · 병세환(주) · 세방부산신항물류(주) · 세방광안국제물류(주) · 세방육운(주) · 목포대불부두운영(주) · 세방부산신항컨테이너대포(주) · 세방이스타이트 | IT | 이앤에스글로벌(주) | 사회공헌 | 세방이의재단

5대 금융악 척결대책 5개월 금융사기 피해액 147억 줄어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337건에 이르던 금융사기 피해액이 190억원으로 급감했고, 불법사금융 및 불법채권 추심 관련 신고·상담 건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14일 금감원은 보이스포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등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발표 이후 5개월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포싱 등 금융사기 척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을 펼쳤다. 300만원 이상 이체시 지연인출 시간을 10분에서 30분으로 확대하고, 기준금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대포통장 척결을 위해서도 힘썼다. 장기 미사용 계좌의 자동화기기 1일 인출 한도를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대포통장 양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337건에 이르던 금융사기 피해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261억원으로 감소했고, 올해 7~8월에는 190억원으로 급감했다.

환급율도 지난해 하반기 17.7%에서 올해 7~8월 35.6%로 대폭 개선됐고, 실제 피해액도 같은 기간

구분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7~8월	
최초 피해액(월평균)	337억원	261억원	190억원
환급금 비율	17.7%	30.7%	35.5%
손 피해액(월평균)	277억원	181억원	122억원
피해자수(월평균)	4962명	3418명	2527명
대포통장 발생 건수(월평균)	8880건	5843건	4342건

277억원에서 122억원으로 감소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과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앞장섰다.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을 기존 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 개편하고, 민원 다발 대부업체 특별점검도 실시했다.

또한 신용정보회사 2곳과 23개 대부업체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불법 전단지과 현수막 등을 집중적발해 시정조치했다. 그 결과 불법사금융 및 불법채권 추심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고금리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644건에서 올해 상반기 533건으로 줄었고, 불법 채권추심은 같은 기간 1627건에서 1554건으로 감소했다.

홍섯벨 기자 byul0104@

금리 깎인 '무과장'... 뒤로 웃었다

대부업체, 상한금리 3차례 인하에 “수익 없다” 앓는 소리

상위 20곳 순익 5095억 달해... 5년 전보다 1.6배 상승

지난 2010년 이후 3차례에 걸친 대부업 법정 상한금리 하향 조정에도 대형 대부업체들의 순이익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계에서는 법정 상한금리 조정움직임이 나타날 때마다 역마진에 따른 줄폐업, 불법 사금융시장 확대 등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반발해왔지만, 실상은 달랐던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14일 국회 정무위 김영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대부업체 수익현황 자료를 보면 상위 20개 대부업체의 순이익은 지난해 509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5년 전인 2009년 순이익 3175억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대부업 상한금리를 2010년 연 49%에서 44%로, 2011년 39%로, 지난해 34.9%로 내렸다.

업계 1위인 아프로파이낸셜의 순익은 2009년 1194억원에서 지난해 989억원으로 줄었지만 2위

인 산와대부는 1316억원에서 1678억원으로 362억원 늘었다.

3위인 웰컴크레디트라인은 같은 기간 105억원에서 335억원으로 증가했으며, 4위인 미즈사랑대부는 -24억원에서 86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5위인 리드코프는 140억원에서 338억원으로 순이익이 증가했다.

대부업 상한금리 하향 조정에도 대형 대부업체들의 순이익은 늘어난 것이다.

김영환 의원은 “대부업 상한 금리를 최대한 내려 서민 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며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상한금리도 현재 추진되는 29.9%보다 더 낮출 여력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여파에 수익성이 악화된 등록 대부업체들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지하경제로 숨어들면

대부업체 순이익 현황

※출처: 금감원

회사명	순이익		증감률
	2009년	2014년	
아프로파이낸셜	1194억원	989억원	-205억원
산와대부	1316억원	1678억원	362억원
웰컴크레디트라인	105억원	335억원	230억원
미즈사랑대부	-24억원	86억원	흑자전환
리드코프	140억원	338억원	189억원

서 불법사금융 시장을 키우는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합법 대출업체에서는 리스크가 큰 대출을 꺼리게되고 저신용자들은 합법 대부업체에서 대출받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정 기자 lmj@

‘채권파킹’ 맥쿼리운용, ING생명 고객에 120억 돌려준다

손실액·이자 포함 40여만명에 반환

ING생명이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으로부터 120억원을 돌려받는다. 불법채권거래에 따른 손실액 전액과 법정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ING생명 고객 40여만명에게 반환되는 것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NG생명은 지난 7월 말 맥쿼리투신으로부터 채권 '파킹(보관)거래'에 따른 손실액 전액과 법정이자 연 5%를 합한 120여억원을 회수하고, 이를 계약자 펀드와 계좌로 돌려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ING생명은 기존 변액보험과 퇴직연금 등을 유지하고 있는 30만명에 대해선 해당 고객의 펀드로 지난달 지급을 끝냈다. 사망, 계약 해지, 만기 도래 등으로 보험 계약이 소멸된 9만명엔 이날 중 계약자 계좌로 반환할 예정이다.

ING생명이 맥쿼리투신으로부터 받는 돈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이유는 맥쿼리투신이 '불법 채권거래'로 손실을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그동안 ING생명은 약 2조원이 넘는 변액보험 자산을 맥쿼리투신운용에 위탁했다. 하지만 지난 1월 금융당국은 맥쿼리투신운용에 대해 강도 높은 검사를 한 끝에 펀드매니저가 증권사 채권브로커와 최대 4600억원 규모의 채권 파킹거래를 통해 투자일임자산을 부적절하게 운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맥쿼리투신운용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다. 맥쿼리투신운용은 신규 일임계약 체결이 3개월간 금지됐다. 최후 대표이사에게도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려졌으며, 해당 펀드매니저를 비롯한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 요구 및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가 결정됐다. 또한 금융당국은 채권 파킹거래에 적극 가담해 주문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7개 증권사도 제재했다.

맥쿼리투신의 불법 채권거래로 ING생명과 삼성생명, 국민연금 고객 등은 약 113억원의 손실을 봤다.

ING생명은 지난 7월 맥쿼리투신에서 120억원을 회수한 뒤 특별계정에 대한 투자일임계약을 종료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LOTTE

Canlatata
SINGLE ORIGIN COFFEE

섞 | 지 | 앎 | 앓 | 다

싱글원두로 만든 균형잡힌 바디감
칸타타 싱글오리진 킬리만자로

킬리만자로
SINGLE ORIGIN
아메리카노

킬리만자로
SINGLE ORIGIN
라떼

Canlatata 칸타타 킬리만자로 싱글 오리진이란?
부드럽고 풍부한 맛으로 유명한 아프리카 대표 원두인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원두만을 사용하여 싱글 원두 본연의 개성 있는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프리미엄 원두 커피입니다

유통기간 확인하여 식품안전 올리브기 **롯데칠성음료**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앞줄 왼쪽 세번째)이 12일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한마음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 선언 터치버튼을 누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하나생명 등 총 11개 관계사 및 해외 임직원 등 그룹 임직원 2만3000여 명이 참여했다.

“임직원 하나로!” 하나금융 ‘한마음 페스티벌’

2만3000명 참여... 역대 최대 규모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12일 “하나와 외환은행이 'KEB하나은행'으로 새 출발하는 등 글로벌 일류 금융그룹으로서의 확고한 기틀이 마련됐다”며 “이러한 그룹의 발전은 모두가 함께했기에 가능했음을 명심하자”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하나금융지주가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개최한 '한마음 페스티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행사에는 KEB하나은행 임직원을 비롯해 하나카드, 하나생명 등 계열사 임직원 2만3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2005년 하나금융지주 출범 후 단일 행사로는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전 임직원들이 5개 팀으로 나눠진 진행된 한마음 체육대회, 지역 예선을 통과한 장기자랑 우수팀들의 본선 축하 무대, 그룹 인피니티가수 씨이 등 한류스타들이 출연한 한마음 콘서트가 차례로 열렸다.

행사에는 세터민,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장애우 등 2000여 명의 소외 이웃이 초대됐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날 1일 통행은행 출범 후 그룹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며, 변화된 그룹의 위상을 공유하고 전 직원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켰다”고 설명했다. 김우림 기자 hura@

진심을 판다 안심을 खाता



농협추석선물세트로

가족, 친지, 이웃과 함께 특별한 가치를 나누세요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농협 아침마루



우리 몸에 딱 맞는, 매일 만나 더욱 맛난
농협 따라네



100% 우리고기
농협목우촌



쓸수록 가치있는
농촌사랑상품권



우리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
농협 아름찬



건강을 전하는 따뜻한 마음
농협홍삼 한삼인



명절을 풍요롭고 든든하게
농협 햅쌀

농협 **h**니로마트 농협 **a**market 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양재 02)3498-7802 창동 02)3499-6000 목동 02)6678-9665 대치 02)555-8222 서초 02)596-0837 방이역 02)400-2007 둔촌 02)473-5501 청담 02)517-6642 월계 02)974-7503 상산 02)304-3448 흑석 02)813-7001 수서 02)451-8322 용산 02)2077-2800 미아 02)980-5670 국회 02)769-1882 석촌 02)417-3345 성내 02)2224-8971 상계 02)937-0291 교하 03)949-1000 가좌 03)2573-8288 소사 03)2351-9100 광교 03)212-7110 용인 03)289-0600 고양 03)910-9000 삼송 02)300-4900 파주 03)943-9595 성남 03)738-9000 수원 03)299-9000 신촌 02)2131-1000 서대문 02)2080-6993 인천 03)2500-9000 대전 04)2580-5000 충북 04)290-0101 광주 06)2650-0001 목포 06)280-6000 전주 06)3210-4545 군위 05)4380-5500 김해 05)310-7000 창원 05)265-8088 울산 05)210-8800 대구 05)355-6311 포항 05)4230-8061 부산 05)330-9000 농협한삼인 문의처 080)346-3434 농협목우촌 문의처 1544-0092 아름찬 문의처 080)399-9988 농촌사랑상품권 구입안내 nhgift.nonghyup.com 전국 2000여개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도 농협선물세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신형 아반떼’ 대박 행진 하루에 600대씩 팔린다



현대자동차의 6세대 아반떼(AD·사진)가 지난주 출시 이후 하루 500~600여대의 판매계약 성과를 내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형 아반떼는 9일 공식 출시 이후 지금까지 모두 1800여대가 판매됐다. 이 차량은 지난주 출시 이후 영업일 기준 3일 동안 하루 평균 600대가 팔린 셈이다.

아반떼는 지난달 26일부터 출시 전까지 11일(영업일 기준)동안 5000여대가 사전에 약됐다. 이를 고려하면 이 차량의 누적 계약대수는 지금까지 7000여대에 근접했다.

이 같은 판매 추세라면 아반떼의 연내 판매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업계는 내

예약자 포함 7000대 판매
연내 5만대 목표 달성할듯
연비 향상 디젤 모델 기대
“내년 국내외 70만대 팔것”

다보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 아반떼를 국내에서 5만대 판매할 계획이다. 아반떼의 판매물량은 소비자의 입소문을 타면서 점차 늘어날 것으로 현대차는 기대하고 있다. 10월 이후 월 1만대 이상 판매하면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다.

아반떼의 판매 흥행 속에서도 본격 성적 가능자는 내년이 될 전망이다. 현대차는 신형 아반떼를 선보이면서 다절 모델의 연비를 크게 개선했다.

아반떼 1.6ℓ 디젤은 오는 11월부터 적용되는 정부 공동고시 기준 복합연비 18.4km/ℓ를 달성했다. 이는 이전 모델보다 13.4% 개선된 수치일 뿐 아니라 올해 국내에 출시된 수입차의 연비를 웃도는 수준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들이 아반떼 디젤의 정숙성을 체험하면 판매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디젤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판매 확대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내년 아반떼를 국내에서 11만대,

해외에서 59만대 등 70만대를 판매할 계획이다.

변수는 있다. 현대차 노조가 올해도 파업을 실시하면서 생산물량이 줄면 아반떼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 회사 노조는 14일부터 잔업을 중단한다. 다음 주말인 19일과 20일에는 특근을 실시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노조는 현재도 합법 파업에 나설 수 있다. 현대차 노사는 내년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국내 전기차 배터리 실적 ‘파란불’

2017년 글로벌 시장 1위 전망
中 전기차 확대, 호재로 작용

한국이 글로벌 전기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 1위를 달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 업체들의 실적에 ‘파란불’이 켜졌다. 중국은 소형전기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00MWh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한 한국은 2018년에는 일본과 중국을 앞지르고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과 일본은 같은 기간에 각각 3800MWh, 2000MWh를 생산하며 1, 2위를 차지했지만 올해 말부터 글로벌 완성차업체의 전기차 모델이 출시되면서 공급처를 가장 많이 확보한 한국이 1위에 올라설 것이라 전망이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성장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 메리츠증권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상반기 전기차 생산량에서 미국을 처음으로 추월하고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부상했다. 중국의 올해 전기차 판매량은 57%의 고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중국시장의 성장은 LG화학과 삼성SDI, SK이노베이션에게는 장기적으로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3사는 일찌감치 중국에 생산거점을 확보하고 중국 및 글로벌 시장 공략을 준비해왔다.

한편, 소형전기 위주의 배터리 시장에서는 중국의 독주가 예상된다. 지난해 원통·각형·과우치형 등의 소형 배터리는 중국에서만 33억9600셀이 생산되며 한국(12억 셀), 일본(9억 셀)을 제쳤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의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유지만 기자 redpill@

유한양행 영업익 3분기 216억… 녹십자는 453억 전망

지난 7월 이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가 사그라진 가운데, 국내 제약회사의 3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제약업계 및 삼성증권에 따르면 제약업계 매출 1위 유한양행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9%, 23.6% 증가한 2818억원, 21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매출 1조원 달성에 실패한 녹십자의 경우

올 3분기 매출 1위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녹십자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한 295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2.3% 감소한 45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약품의 3분기 매출액은 20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업손실은 29억원으로 적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인호 기자 kangih@

한성정보총국 개국 130년맞이 ‘통신 130년 국민 수기 공모전’



KT는 우리나라 첫 통신기관인 한성정보총국의 개국 130년을 맞아 ‘통신 130년 국민 수기 공모전’과 ‘통신 사료 융합 예술작품 공모전’을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통신과 관련한 에피소드와 사진을 제출해 참여할 수 있다. 사연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수필 형식으로 A4용지 2매 분량으로 제출하면 되며 심사 결과는 내달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제공 KT

소비자와 점점 넓히는 삼성

인도 대규모 체험존 이어 국내 삼성딜라이트 재개관

새 제품·서비스 직접 경험

삼성전자가 소비자 접점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글로벌 주요 국가에 삼성 모바일 라이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대규모 종합체험관을 마련해 삼성 스마트기기 사용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인도에 대규모 종합체험관을 열었다. 인도 현지에서 체험존을 갖춘 종합 리테일 스토어는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삼성전자는 ‘소비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삼성 브랜드가 있다’라는 모토 하에 새로운 혁신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모바일 액세서리 등의 체험 기회를 인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중국 북경에 ‘갤럭시 라이프 스토어’를 문 열었다. 갤럭시 라이프 스토어는 모바일 기술과 라이프 스타일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마케팅 플랫폼으로, 젊은층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

국내에서는 서울 홍대에 지난해 8월 복합문화공간 디지털프라자가 개관했고, 이달 12일에는 서울 서초사옥에 위치한 삼성전자 대표 브랜드 체험관 ‘삼성 딜라이트’가 체험 요소가 더 강화된 공간으로 재개관했다.

삼성전자는 이와함께 2013년 10월 영국 노팅엄에서 ‘갤럭시 스튜디오 인 유어 라이프’를, 지난해 2월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갤럭시 스튜디오’를, 같은 해 6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갤럭시 11 월드투어’ 등 일회성 체험 이벤트를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이는 세계 스마트폰 기술이 상향평준화



12일 리노베이션을 마치고 새로 오픈한 서초동 삼성전자 딜라이트 홍보관에서 직원들이 딜라이트를 소개하고 있다.

되면서 삼성 스마트폰 지배력이 점차 약화되는 추세와 맞물려 있다는게 업계의 평가다. 또 삼성전자의 독자 운영체제(OS) ‘타이젠’ 확산과 자체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 페이’ 출시 등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종합체험관의 시작은 최대 스마트폰 소비처인 미국이다. 2013년 12월 뉴욕 맨해튼 소호지역에 첫 발을 내딛 ‘갤럭시 스튜디오’는 최근 홍보 파급력이 큰 글로벌 스타들이 참여하는, 오스카 시상식 관람행사나 어벤저스 팬미팅과 같은 다양한 이벤트 등을 개최하며 글로벌 마케팅의 첨병으로 부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기기가 라이프 스타일 전반으로 활용성이 넓어짐에 따라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초점이 소비자까지 직접 사용해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형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guty@

LS그룹, 임금피크제 전면 도입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에

LS그룹이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LS그룹은 내년부터 임금피크제의 전면 도입을 통해 직원 고용안정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LS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LS전선이 2007년부터 협력적 노경관계를 바탕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데 이어 직원 300명 이상 계열사 9개사 중 6개사(도입율 67%)에서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300명 미만 계열사를 포함하면 그룹 전체로는 약 25% 정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LS전선은 2007년 전선업계 처음으로 정년 60세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산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근속년수가 22년으로 고령 근로자가 많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사가 상호 양보와

협상을 통해 최종합의에 성공한 것. 이후 대부분의 주력 계열사들이 임금피크제를 적극 도입해 시행해 왔다.

LS그룹은 향후 각 회사별로 임금조정 연령과 방식, 정년 연장 방식 등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LS그룹은 내년부터 채용규모를 매년 10% 이상 늘려 오는 2017년까지 2300여명의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기로 했다.

한편, LS그룹은 올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그룹 공채와 수시채용 등을 통해 총 500여명의 인재를 확보할 계획이며, 올해도 회장단 및 CEO들이 주요 대학의 채용설명회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공채 원서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R&D, 국내·해외영업 등의 직무 분야를 중심으로 LS의 미래 성장사업을 이끌 인재를 선발한다. 권태성 기자 tskwon@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D-1

국내 완성車 ‘비밀병기’ 베일 벗는다

현대차 고성능 브랜드 ‘N’ 공개
쌍용차 ‘티볼리 롱바디’ 첫 선

오는 15일 독일에서 열리는 ‘2015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국내완성차 업체들의 비밀병기가 베일을 벗는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고성능 브랜드와 전라형 신차 등을 공개하며 미래 먹거리 창출에 사활을 건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모터쇼를 통해 고성능 브랜드 N의 첫 콘셉트카를 공개한다. 공개와 함께 N 브랜드 상용차를 2년안에 출시, 본격적인 고급브랜드로 자리매김한다는 각오다. 현대차는 N브랜드 출범을 모터쇼 보도발표회 현장을 온라인 생중계할 예정이다. 더불어 N비전 그란투리스모(N VGT) 쇼카(콘셉트카 이전 구상 단계의 차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브랜드 N의 첫 콘셉트카(왼쪽)와 쌍용차 티볼리의 롱바디 콘셉트카 ‘XLV-Air’ 렌더링 이미지.

동차)를 비롯해 콘셉트카 RM(레이싱미드십)15, 차세대 i20 랠리카 등을 공개하며 N 브랜드의 개발 방향성을 소개할 계획이다.

특히 콘셉트카는 쿠페 부문으로 선보일 ‘비전 G’는 앞으로 1~2년 내 양산 모델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비전 G는 사실상 제네시스 쿠페의 후속 버전이다. 쿠페 콘셉트카 ‘비전G’는 미국 캘리포니아 어반에 위

치한 현대차 미국디자인센터와 경기도 남양원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차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티볼리 롱바디 모델의 양산형 콘셉트카 ‘XLV-Air’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이 회사는 이미 XLV-Air의 외관 이미지(렌더링 이미지)를 공개한 상태다. 티볼리 롱바

디는 이미 출시된 5인승 티볼리에서 차체가 조금 더 길어진 7인승 모델이다.

쌍용차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2만6000대가 판매고를 올린 티볼리에 이어 나오는 롱바디 모델을 통해 판매량을 더욱 늘려 나가겠다는 각오다. 티볼리는 롱바디 모델은 내년초 국내에 출시될 예정이다. 김범곤 기자 nova@



유럽 최대 항만터미널 확보

현대상선이 유럽 최대 항만에 컨테이너 전용터미널을 확보해 항만 물류 사업을 본격화한다.

현대상선은 지난 11일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컨테이너 전용터미널 RWG 개장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개장식에는 하청회 현대상선 운영총괄 상무 등 터미널 주주사 관계자들과 최종현 주네덜란드 대사 등 국내외 해운물류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시작점과 종착점이자 유럽의 메인 허브 관문인 로테르담 항만은 2013년 물동량 처리량 기준 세계 10위를 기록, 아시아-유럽항로와 대서양항로의 건조한 물동량 증가로 성장세가 커지고 있다.

현대상선은 2012년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사인 APL, MOL, CMA CGM과 항만 운영사인 DP World와 함께 로테르담 항만에 RWG 개발을 시작, 3년안에 올 상반기에 완공해 시범 운영을 해왔다.

RWG는 최대 2만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규모의 초대형 선박이 정박 가능한 규모며 총 면적 108헥타르(ha), 선석 길이 1700m, 수심 19.5m다. 연간 처리 물동량은 235만TEU에 이른다.

터미널 총 개발비는 10억 달러가 소요됐으며, 현대상선의 지분은 20%이다. 운영은 DP World가 맡게 된다.

이 터미널은 컴퓨터 제어로 작업이 이뤄지는 전자동화 터미널로 100% 그린에너지로 가동되며 해상과 도로, 철도를 연결하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하유미 기자 jscs508@

가보니

中 상하이·저장성 설빙 매장

“인절미 빙수 맛보자” 줄서는 중국인

“중국인들은 오이도 익혀 요리해 먹을 정도로 찬 음식을 잘 먹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 5월 오픈한 설빙 상하이 1호점은 인절미 빙수를 먹으러 주말 평균 2500~3000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중국 상하이 홍첸루에 위치한 설빙 상하이 1호점에서 만난 상하이빙식품무역유한공사 남대호 이사 목소리에는 흥이 났다. 설빙은 지난 8월 상하이에서 2·3·4호점을 연이어 개장했다. 3호점은 한국인의 거리라고 불리는 홍첸루에 중국인이 너무 몰려 1호점과 도보로 10여분 거리에 오픈했다.

‘차(茶) 문화를 알면 중국인이 보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인들에게 차가운 디저트인 빙수는 즐겨찾는 식재료가 아니다. 그러나 한류 열풍을 타고 중국 내 빙수 진출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후발주자인 설빙이 팔을 잘 먹지 않는 중국인들에게 인절미와 콩가루로 차별화해 대륙 공략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먹고 있는 셈이다.

가장 잘 나간다는 인절미 빙수는 49위안화로 한국 돈으로 1만원 수준이다. 중국인들에게 비싸지 않는다는 점에 남 이사는 “상하이 지역의 생활 수준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며 “또 중국인들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음식에 대한 맛·위생 등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콩가루 등 재료 차별화해 대륙 공략

상하이 1호점 주말 3000여명 방문

인기 힘입어 2·3·4호점 연이어 개점

항저우 1호점 오픈식 전 200여명 몰려

2020년까지 매장 160곳으로 확대 계획

K-디저트 열풍에 ‘짜퉁 설빙’도 판쳐

설빙은 상하이뿐만 아니라 쓰촨성(四川省)·산시성(山西省)·충칭(重慶)지역 등 3곳을 통합해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MOU)을, 지난달에는 광둥성(廣東省)과 MOU를 체결했다. 이어 지난 9월에 중국 내 손꼽히는 경제 도시가 밀집된 저장성 지역에 진출을 확정했다.

지난 12일 개점된 설빙의 저장성(浙江省) 공략 출전식은 화려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저장성 항저우(杭州)시 하청구에 위치한 항주 1호점은 그랜드 오픈식이 열렸다. 면적 463㎡, 3층 규모인 항저우 1

호점은 이날 오픈식 전부터 200여명의 사람들이 몰려 상황을 이뤘다.

항주설빙식품무역유한공사 쑤이관 대표는 “올해 10개 매장을 개점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160개 매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설빙의 인기가 높아지자 ‘짜퉁’ 설빙도 판치고 있다. 항저우 1호점에서 2km 떨어진 증신가에 얼음빙(氷) 한자로 바꿔 상호를 만든 가짜 설빙이 이미 문을 열고 인절미 빙수를 똑같이 판매하고 있었다. 가짜지만 20여개 남짓한 테이블엔 사람들이 꽂차 있었다. 설빙 관계자는 “주인이 상하이 1호점 직원인 친인척을 데려와 매장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내 ‘설빙빙’, ‘설화빙수’, ‘설우’ 등 비슷한 이름을 내걸다 못해 이제 똑같은 이름으로 한국 인증서까지 걸어놓고 영업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빙 코리아는 중국 상표법으로 인해 제재를 가하지도 못하고 있다. 중국 상표법은 다른 나라의 유명 상표라도 중국에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고 있다.

막무가내 식의 중국 베끼기에 골치가 아파드는 설빙 측은 “모형만 같지 맛은 완전히 다르다”며 “얼음 베이스·콩가루 등 모든 재료를 한국에서 제공하고 있어 맛으로 승부를 걸겠다”고 밝혔다.

상하이·저장성(중국)=김혜진 기자 sinembargo@



지난 12일 중국 저장성에 위치한 설빙 항저우 1호점 오픈 행사에 200여명의 손님이 한꺼번에 몰려 상황을 이뤘다.

지하철 매장 농친 미사, 괜찮아~

1·4호선 재입찰 경쟁 실패로 단기 약재
수익 최우선...고임대로 부담은 덜어

지하철 1·4호선 매장 전체를 접게 된 화장품 브랜드 ‘미샤’에 대한 우려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매장 철수로 3분기 매출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물론 예전과 같은 ‘선전효과’를 더이상 누리기 힘들겠지만, 오히려 비싼 임대료 탓에 수익을 격정해야 하는 상황은 면했기 때문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표면적으로 미샤의 이번 재입찰 실패는 약재다. 지난 9월 입찰 결과 발표 후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앤씨의 주가는 전일보다 12.83%나 빠졌다. 장중 한때 15%가 넘는 하락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시장 참여자들이 매장 철수를 그만둬 안출해 왔다는 얘기가. 게다가 5년 이상 운영했던 매장 전부를 브랜드숍 경쟁업체 네이처리퍼블릭이 차지한 점도 미사로서는 부담이다. 이날 서울메트로가 진행한 화장품 전문점 운영사업장 경쟁 입찰에서 네이처리퍼블릭은 사업자로 선정되며 총 68개 매장을 운영하게 됐다. 이로 인해 갈수록 치열해지는 브랜드숍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반면 에이블씨앤씨는 이번 입찰에서 향후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선에서 입찰을 진행했다”며 “메트로의 최소 입찰금액에 근사한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해당 지하철 매장은 지난 7월에 철수를 완료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을 상당 기간 준비해왔기 때문에 회사 운영에 타격은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네이처리퍼블릭의 이번 낙찰을 두고 선불리 ‘승자의 저주’ 운운하기도 힘들다. 상장을 앞둔 네이처리퍼블릭으로서의 새로운 매출 창구가 절실했고, 규모의 확대도 필요한 시점이다.

윤철규 기자 yoonck@

유통업계, 지역색 살린 제품 출시 봇물



플라워 오브 산청·제주 퍼퓸 노트 향수...

브랜드에 지역色을 입혀라

유통업계, 제품 신뢰 높여 로열티 형성
해당 지역과 상생협력 도모 '윈윈 전략'

최근 유통업계에 대한민국 곳곳의 지역색을 살린 제품 출시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역 제품 출시는 국내 대표 지역의 떠오르는 이미지를 살려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해 지역과 소비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론칭한 프레스티지 향 전문 브랜드 센틀리에에는 국내 1대 조향사 이승훈씨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경남 산청군 지리산의 야생화와 나무 향을 담은 ‘플라워 오브 산청’과 ‘포레스트 오브 산청’ 라인을 출시했다. 센틀리에의 시그니처 향이기도 한 산청라인은 지리산 자락 특유의 담백하면서 매혹적인 공기를 자아내는 야생화 향기, 야생 식물들과 소나무의 청량한 향을 담아냈다. ‘플라워 오브 산청’은 지리산의 계곡과 냇가에서 수줍게 피어나는 쫄래꽃 향, 순박한 매화 향, 은은한 감국 향이 어우러져 내 속에 숨어있는 나를 깨워 주는 젊음을 표현했다. ‘포레스트 오브 산청’은 산청 침엽수림의 싱그러움 풀 내음과 적송 향으로 몸과 마음을 깨워 온전한 휴식을 선사해준다. 센틀리에 이상현 홍보 부장은 “지역색을 살린 제품들은 우리나라 지역만의 이미지와 특색을 담아 국내 소비자들의 정서뿐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센틀리에도 지리산 산청의 향을 시작으로 앞으로 아름다운 한국의 여러 곳들을 소개할 수 있는 향들을 추가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는 제주산 원료를 꾸준히 사용하며 제주도의 ‘청정 지역’ 이미지를 브랜드 헤리티지로 삼고 있다. 제주 녹차를 활용한 ‘그린티 퓨어 라인’부터 유채꽃, 감귤, 화산송이 등 제주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각광을 받았다. 최근에는 제주의 여행장소에서 영감을 받은 ‘제주 퍼퓸 노트 향수’, 제주 산방산 탄산 온천수를 사용한 ‘제주 탄산 미네랄 에센스’를 출시하는 등 제주와 관련된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더샘은 강원도 강릉 지역의 검은 대나무 ‘오죽’을 활용한 수분 진정 라인 ‘프레쉬 뱀부 미스트’ 2종을 선보였다. 일반 정제수가 아닌 강릉지역의 세계적인 희소성이 있는 오죽을 원재료로 사용해 다사 제품과 차별화를 꾀했다.

식품업계는 국내 농가와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 농산물이나 유명 특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CJ제일제당은 2011년 지역사회의 중소 식품기업과 함께하는 상생 브랜드 ‘즐거운 동행’을 출시하고 꾸준히 제품을 내놓고 있다.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백두대간 공동 사업법인에서 100% 강원도 콩만을 사용해 만든 ‘강원 백두대간 두부’, 여수 돌산을 갖고 만든 ‘여수 돌산갓 김치’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여수 돌산갓 김치’는 출시 이후 연간 3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경북 청도군과 함께 지역 특산물인 청도 홍시를 원료로 한 ‘멜론트 제철과실 청도 홍시’를 선보였다. 제주 감귤 재배 농가와 협력을 통해 만든 ‘제주사랑 감귤사랑’에 이은 상생협력쥬스다. 이 제품은 홍시가 가진 최적의 맛을 살릴 수 있도록 원료 구매와 배합에 신경을 써 달콤한 청도홍시 본연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선에 기자 isa@

71년 전통의 대한민국 정통 제제주 백화수복

백화수복 전속모델 김수미

집집마다 차례상은 달라도
추석에는 백화수복

가장 오랫동안 사랑 받아온 대한민국 정통 제제주 백화수복
집집마다 차례상은 달라도, 명절에는 역시 백화수복입니다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건강이나 안전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순항 한화건설 선수금 2400억 수령

이라크 정부, 국가사업 강력 의지
누적수주액 11조4000억원 돌파

한화건설은 13일 이라크 정부로부터 올해 4월 수주한 2조4000억원 규모의 비스마야 신도시 사회기반시설(Social Infra) 공사에 대한 선수금 등 약 2400억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수금 수령은 최근 유가하락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라크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민주택 설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이다.

또한 지난 8월 이라크 정부는 알 아바디 총리의 성명을 통해 “농업, 주택 부문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5조 디나르(약 44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화건설은 이번 선수금 수령을 통해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공사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는 현재 총 8개 타운 중 첫 번째인 A타운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A블록 4320가구가 속속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다른 블록에서도 각각 부지 조성, 기초 공사, 아파트 건립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공사 성수기에는 연간 2만 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8개 타운, 59개 블록 834개 동으로 구성된 초대형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수처리시설, 도로 및 조경공사 등 도시 인프라 공事も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한화건설은 지난 2012년 5월 약 9조원(80억 달러) 규모의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를 수주했으며, 2015년 4월 약 2조4000억원(21억 달러)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공사를 추가로 수주해, 누적 수주액 약 11조4000억원(101억 달러)을 돌파했다.

이 신도시 건설공사는 여의도 6배 면적(1830ha, 550만평)에 분당급 신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동남쪽으로 10km 떨어진 비스마야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10만호 국민주택 건설공사를 포함하는 신도시 조성공사와 300여 개 학교를 비롯한 병원, 경찰서 등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 공사로 구분된다. 공사기간은 7년이다. 공사완료 시점인 2019년이 되면 내전 이후 현대화된 도시로, 이라크의 발전된 위상을 보여주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태진 기자 tjippo@

‘강남 재건축’ 호재의 연쇄효과

이주 수요자 ‘새집 찾기’ 주변까지 영향
8월 3.3㎡당 매매가 3122만원 상승세
전셋값도 1788만원으로 15%가량 올라

‘래미안 대치 청실’ 이달 집들이 앞두고
전용 91㎡ 매매가 15억·1년새 4억 꺾중
‘반포 푸르지오써밋’등 후속 물량 주목

부동산시장 호황 속에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이 바로 강남 재건축 사업이다.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이주 수요자가 새집 찾기에 나섰다 이는 인근 지역 집값과 전셋값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2014년 8월 3.3㎡당 평균 2924만원이었다.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올 3월 3000만원, 8월 3122만원을 기록했다. 전셋값 상승도 가파르다. 강남 아파트 3.3㎡당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8월 1543만원에서 올 8월 1788만원으로 15%가량 상승했다.

뿐만 아니라 새 아파트의 분양권과 입주권에 억 단위의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8월 거래된 서울 강남구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은 60건에 달했다. 전달(8건)보다 7배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강남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하고 이달 래미안 대치청실의 입주가 임박했기 때문으로 풀이

하반기 강남 재건축 분양단지			
위치	단지명	전용면적(㎡)	총가구수(일반)
서울 강남구 대치동 612번지	대치 SK VIEW	59~125	239(39)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1-1	래미안 에스티지S	59~134	593(148)
서울 서초구 반포동30-20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	59~133	751(203)
서울 서초구 반포동 32-5	서초 한양 래미안	59~99	818(244)

※상기정보는 건설사 사정에 따라 변경 될수 있습니다
※출처 : 각 사

된다. 래미안 대치 청실은 강남권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는 입주단지로 꼽힌다. 전용 91㎡의 경우 지난해 2월까지만 해도 10억~11억원 사이에 거래됐다. 하지만 입주를 한 달 앞둔 지난달 4억~5억원의 웃돈이 붙은 15억7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업계 전문가는 “강남 주민들은 가급적 같은 지역에서 집을 마련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이주 수요와 강남 이전을 계획하는 수요가 맞물려 강남 집값 강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상반기 잠잠했던 강남 재건축 시장이 하반기 분양에 나서면서 강남 부동산시장의 열기를 더하고 있다.

지난달 올해 첫 강남 재건축 분양을 시작한 대치SK뷰는 26일 1순위 청약에서 최고 49.71대 1의 성적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10~20층, 4개동, 전용면적 59~125㎡ 총 23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84㎡ 39가구가 일반분양됐다.

이에 강남 재건축 후속 분양 물량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 삼성물산은 이달 서울 서초동 1331-1번지 일대 서초 우성2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에스티지S를 공급한다.

서초 우성 1-3차에 이어지는 재건축 단지로 향후 2300가구 내외의 래미안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나오는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2층 5개동, 59~134㎡형 593가구 규모다. 이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84~134㎡형 14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또한 대우건설은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4차를 재건축한 반포센트럴 푸르지오써밋을 이달 분양할 계획이다. 전용 59~133㎡의 751가구 중 20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오는 11월에는 삼성물산이 서초구 반포동 32-5 일대에 서초한양 재건축 단지 서초 한양 래미안을 분양한다. 총 818가구로 이 중 244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도시정비 강자…GS건설 ‘6조 클럽’ 눈앞



누적수주액 5조2000억원 넘어서
서초 무지개 아파트 시공권에 달려

올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수주에서 독보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GS건설이 수주액 6조원대를 바라보고 있다.

이달 초 이미 5조2000억원대를 돌파한 데다 남은 하반기 수도권을 비롯한 알짜 물량 수주전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19개 사업장에 걸쳐 총 5조2452억원이다. 약정을 제외하고 수주가 확정된 금액은 1조5636억원(63%)이다.

상반기에만 4조5000억원을 수주한 GS건설은 하반기에도 4145억원 규모의 부산 양정1구역 재개발 사업 등을 수주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브랜드 파워가 도시정비

사업 수주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원이 직접 시공사를 뽑는데 ‘자이’ 브랜드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반기에도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선별 수주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GS건설의 정비사업 수주액 6조원 돌파 여부는 하반기 수도권 최대어인 서울 서초구 무지개아파트 재건축 시공권 수주에 달려 있다. 다음 달로 계획된 시공사 선정에는 GS건설과 삼성물산이 참여한 상태다. 이른바 ‘자이’와 ‘래미안’의 경쟁이다.

한편 GS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사들도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한 주택사업 수주에 힘을 쏟고 있다.

대림산업은 상반기 주택(정비사업·도급사업 등)분야에서 4조1000억원을 수주했다. 현재까지 재개발·재건축 분야의 수주액은 약 6800억원, 주택분야 전체는 4조5000억원 정도를 기록 중이다. 이 건설사는 현재 광주와 대구 쪽에서 정비사업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도 상반기 주택사업 수주 2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정비사업 수주전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진 기자 tjippo@

금주의 분양 캘린더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연락처
9/14 (월)	접수	경기	용인시	노량진동	메가스터디타워	1566-9818
				상현동	광교지웰홀스 (~9/15)	1544-9899
				공단동	메가스터디타워	1566-9818
9/15 (화)	계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e편한세상구미파크밸리 (~9/16)	054-465-0035
				다기동	천안일봉신해피트리1순위	041903-7070
				옥수동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 (~9/17)	021313-3133
9/16 (수)	접수	전남	나주시	송월동	나주송월지구양우내안에 1순위	1600-0610
				금호동1가	e편한세상신금호	021514-6400
				금호동4가	힐스테이트신금호	0213463-9780
9/17 (목)	발표	경기	용인시	상현동	광교지웰홀스	1544-9899
				독산동	롯데캐슬골드파크타워960 (~9/17)	021868-1616
				구갈동	기흥역파크푸르지오 1순위	1899-8082
9/18 (금)	접수	경기	화성시	송산면	송산시범단지EGthe레이크뷰 1순위	1899-5300
				송월동	나주송월지구양우내안에 2순위	1600-0610
				남평동	나주남평양우내안에리버시티타	0621385-3262
9/19 (토)	발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	문래모아미래도	0621520-0100
				오목천동	수원권선품에그라인치, 2차, 3차	0801729-2400
				용인동	e편한세상평택용인(1 B/L)	1544-3033
9/20 (일)	접수	경기	평택시	용인동	e편한세상평택용인(2 B/L)	1544-3033
				구갈동	기흥역파크푸르지오	1899-8082
				송산면	송산시범단지EGthe레이크뷰 2순위	1899-5300
9/21 (월)	발표	경남	진주시	정촌면	진주정촌후방아이유엘(2B-6L)	0551755-7711

※(주1) :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굵은 글씨로 표시
※자료: 부동산114

본격적인 분양철로 접어들어 9월 셋째 주에는 5000여 가구가 청약에 들어간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셋째 주(14~18일)에는 전국 10개 사업장에서 4958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기흥역파크푸르지오 994가구

(오피스텔 226가구 포함), 송산시범단지EGthe레이크뷰 782가구 등 3423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에서는 충남 천안일봉신해피트리 546가구(일반분양 168가구), 전남 나주송월지구양우내안에 358가구 등 1535가구를 내놓는다.

박태진 기자 tjippo@

더도말고 덜도말고
한삼인만
같아리

행사기간 : 2015.8.20 ~ 9.30 (42일간)

풍성한 한가위! 더욱 더 풍성하게!

일부 품목 최대 50% 세일, 한삼인 홍삼으로 더욱 더 풍성한 추석 보내세요.

할인가격 행사

10%

홍삼정프리임 | 제품구성 : 240g
| 홍삼정프리임 60ml x 60포, 미원수 60ml x 30포, 홍삼정프리임 40g x 10개/20개

15%

홍삼정프리임 | 제품구성 : 240g
| 홍삼정프리임 60ml x 60포, 홍삼정프리임 20g x 5개/10개, 다량직접홍삼 50ml x 30개/60포

20%

홍삼산맥골드 | 제품구성 : 70ml x 30포/60포

25%

심의환 | 제품구성 : 3.8g x 20환
| 홍삼환 1환 x 10개, 홍삼환 1환 x 12개/25개, 홍삼환 50ml x 42포, 블루베리홍삼환 50ml x 30포

특별가격 행사

프리미세트 224,000원
| 제품구성 : 홍삼정프리임 240g x 1개, 다량직접홍삼 10개, 홍삼정프리임 20g x 5개/10개, 홍삼환 50ml x 30개/60포

연홍세트 74,000원
| 제품구성 : 홍삼정프리임 240g x 1개, 홍삼정프리임 20g x 5개/10개, 홍삼환 50ml x 30개/60포

복분자홍삼진 33,750원
| 제품구성 : 50ml x 30포

홍삼 멀티비타민 27,000원
| 제품구성 : 홍삼 멀티비타민 1000mg x 90정, 홍삼정프리임 20g x 10개, 홍삼환 50ml x 30개/60포



※행사품목은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농협홍삼

제품문의 080-346-3489 / www.hansamin.com
가까운 전국 가맹점, 농협마켓 및 농협매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BIG BANG

Class 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20년 앞선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 설계 기술력 - **뱅**

힘들고 어려웠던 아이언 4,5번 거리를 이제부터는 아이언 7,8번으로

쉬고, 포진하세요!!



누구나 한 두 번 실수를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실수 후에 만회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누구나 가끔 드라이버를 잘못 칠 수 있지만
현명한 골퍼는 세컨샷 선택이 다릅니다
돌이켜 보면 스코어는 여기서 차이가 났었습니다
길게 남은 거리 - 롱아이언을 잡아야 할 시점에
40야드 더 나가는 뱅 롱디스턴스 하이브리드 아이언을 잡으면
쉽고 편하게 투온이 되어
티샷 실수를 만회합니다.

반발계수 0.925
40yd 더 나가는 **극초고반발**
하이브리드 아이언
BIG BANG Longdistance

일반적인 아이언보다

- 비거리가 +40yd 더 나간다.
- 방향성이 훨씬 좋다 - 체적이 커서 스위트팟이 넓고 빗맞아도 뒤틀리지 않는다.
- 출발 백스핀 1.12배, 착지 백스핀 3.5배 증가 - 백스핀이 너무 많아 그루브를 없앴다.
- 뒷땅이 없다.
- 엘보우가 없다.
- 스윙이 쉽고 편하다.
- 세계에서 제일 가볍다. (초경량, 스윙밸런스 B3까지도 가능)

대표전화 : 1544-8070

(주)뱅골프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7-3 (야탑로 28) 한국골프회관1층

주의 - **BIG BANG** 뱅골프 로고가 틀리거나 샤프트에 뱅골프코리아의 홀로그램이 없는것은 모조품입니다.
Made in Japan or Bang Golf Korea Fitting ※ 가격 영원 불변 정책 ※
TEL : 031) 781-2041 · FAX : 031) 781-2031 www.banggolf.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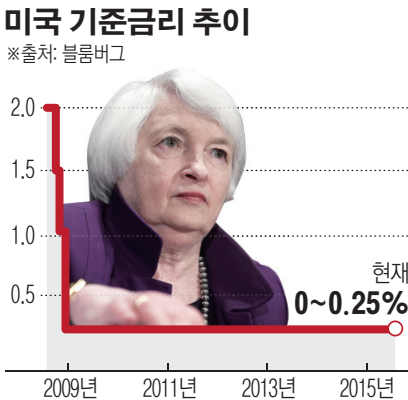
엘런에 쏠린 눈... 글로벌 시장 ‘폭풍전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16·17일 양일간 FOMC 마치고 직접 기자회견 예정
7월 신규구인 사상 최대치 등 시장경제 좋아졌지만
中 위안화 평가절하에 글로벌 금융 변동성은 ‘최악’
신흥국 “빨리 올려라” IMF “연기하라” 의견 분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이번 주 개최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연준은 오는 17일(현지시간) 이틀간의 FOMC를 마치고 성명을 발표한다. 분기 경제전망 보고서와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연준의 달레마가 커진 상황이다. 미국 CNN머니는 13일자 기사에서 미국 경제가 더는 ‘제로(0)’ 금리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좋아졌다고 연준이 금리인상의 첫발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 고용지표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신규 구인은 575만 3000건으로 집계가 시작된 2000년 12월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실업률은 5.1%로 완전고용 수준에 이르렀다.
미국 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미루면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워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SMBC닛코증권의 마루야마 요시마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금리인상 연기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9월 인상이 연준의 메인 시나리오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준 금리인상 관측에 자극 중시가 요동치고 통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혼란에 지친 신흥국 중앙은행 관계자들도 연준이 차라리 이달



금리를 올리는 것이 낫다고 강조하고 있다. 월가 전문가들은 이번 주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6%가 9월 금리인상을 점쳤다. 이는 8월의 82%에서 폭 떨어진 것이다.
해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중국 인민은행의 지난달 기록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극도의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연준이 금리인상으로 긴축의 첫 발을 내딛으

면 신흥국이 견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 미국의 입김이 센 양대 국제 금융기구 가 이미 해외 상황을 이유로 금리인상 연기를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세계적인 경제 석학들도 금리인상 연기 주장에 동참하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지난주 ‘지긋지긋한 연준’이라는 글에서 미국의 낮은 인플레이션 수준, 고용 지표와 현실의 괴리 등을 이유로 금리인상에 반대하고 나섰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도 지난 12일 “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신을 하기 전까지는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준이 실제로 금리를 올린 후의 시장 반응을 놓고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나 일각에선 이미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이 예고됐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h94@

신흥국 시장 충격... 프랭클린템플턴에 ‘불뚝’

(세계적 자산운용사)

투자자 자금유출 가속화... 내년 실적 10%↓ 전망

미국의 금리인상 시점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중국의 경기 둔화로 신흥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으면서 세계적인 자산운용사에도 불뚝이 튀고 있다.
세계적인 투자회사 미국 프랭클린템플턴이 역대 최악의 자금 유출로 고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투자자들이 프랭클린템플턴의 주요 펀드가 신흥시장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등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랭클린템플턴이 시장의 변동성에 쉽게

자금을 옮기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크게 의존했던 것 역시 역풍으로 되돌아 오고 있다는 것.
이에 전문가들은 내년 프랭클린템플턴의 실적(지난 6월 이후부터 집계)을 약 10% 낮게 점치고 있다. 고객 감소로 운용하는 자산의 규모가 급감하고 있는 만큼 만족스러운 실적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투자자들은 마이클 하젠스탑 프랭클린템플턴 수석 부사장이 신흥국을 중심으로 연계해 운용했던 ‘템플턴글로벌본드펀드’에

서 자금을 대규모로 빼냈다. 하젠스탑 수석 부사장이 운영하던 610억 달러(약 72조410억원) 규모의 이 펀드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6%의 손해를 봤다. 금융정보업체 모닝스타에 따르면 이 펀드의 상당수가 멕시코 채권과 연계돼 있는데, 멕시코 통화인 페소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수익률도 덩달아 악영향을 받았다. 이에 투자자들은 하젠스탑 수석 부사장이 운영하는 펀드에서 지난달에만 19억 달러를 뺐다. 올 들어 9개월 동안 무려 64억 달러나 빠져나간 것이다.
FT는 “프랭클린템플턴이 운용하고 있는 전체 8060억 달러 자산 가운데 절반 정도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신흥국 경제 위기로 인한 프랭클린템플턴

의 손실을 우려했다. 프랭클린템플턴의 모회사인 프랭클린 리소스의 주식도 올 들어 30% 이상 급락하는 등 시련을 겪고 있다.
현재 신흥국들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의 침체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마크 모비우스 템플턴자산운용 이머징마켓그룹 회장은 “8월 중시 흐름을 볼 때 시장은 잠재적인 기회를 찾고 있으며, 조정기에 있다는 점을 염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모비우스 회장은 아직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지표를 지적하며 미 연방준비제도의 이달 기준금리 인상을 반대한 바 있다.
서지희 기자 jhsseo@



‘메카’ 성지순례 앞두고 날벼락

한 이슬람 신도가 13일(현지시간) 크레인 이 덮쳐 대형 참사가 발생한 이슬람교 최대의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메카의 그랜드 모스크에 서서 신을 향해 두 손을 치켜들고 기도하고 있다. 지난 11일 이곳에서는 초속 18m 정도의 강풍에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107명이 사망하는 등 35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당일이 금요일 예배(주마)가 열리는 날인 데다 오는 21일 시작될 정기 성지순례(하지, Hajj)를 열을 앞두고 세계 각지에서 무슬림들이 몰려든 상황에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메카/AP연합뉴스

뉴스와이어 시장 머독對 블룸버그

머독의 뉴스코프 산하 ‘다우존스’
‘심포니’와 손잡고 블룸버그에 대항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과 마이클 블룸버그 블룸버그통신 창업자가 글로벌 뉴스와이어 시장의 왕좌를 놓고 격돌한다.
머독이 이끄는 뉴스코프 산하의 뉴스와이어 ‘다우존스’가 인스턴트 메시징 업체 ‘심포니’와 손 잡고 글로벌 뉴스와이어 시장의 선두인 블룸버그에 대항한다고 1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심포니는 지난해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월가의 금융기관들이 6600만 달러(약 779억4600만원)를 투자해 만든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13년 블룸버그가 데이터 마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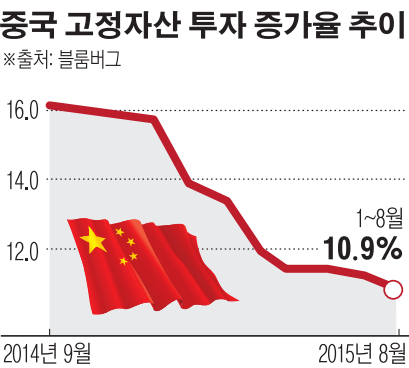
을 통해 이용자들의 주요 정보를 빼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월가 주요 금융기관들이 정보보호 차원에서 만들었다.
다우존스는 심포니와의 계약을 통해 심포니 사용자에게 미국 경제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다우존스 산하의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월가에서 머독의 영향력은 한층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1990년에 설립된 블룸버그는 현재 월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정보원으로 뉴스와이어 시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뉴스, 데이터, 메신저 등을 갖춘 것이 블룸버그의 장점이다. 현재 연간 2만1000달러의

단말기 사용료를 내는 블룸버그 이용자 수는 32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FT는 “머독 회장이 월가 금융기관과의 협력으로 블룸버그와의 본격적인 격돌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월가에 금융정보 제공자 역할을 하려는 경쟁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블룸버그를 무너트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우존스 외에 톰슨로이터 역시 블룸버그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 그간 블룸버그에 밀려 부진했던 톰슨로이터는 지난 2008년 4월 로이터그룹과 톰슨과이앤설의 합병으로 금융정보 단말기 업계 1위로 올라서기도 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침체 국면에 들어선 中경제 ‘국유기업 개혁’서 길 찾는다

올 8월까지 고정자산 투자 10.9% ↑ 15년 만에 최저
국유기업 재편·성장 추진 골자로 하는 ‘개혁안’ 발표

중국 정부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중국 경제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로 ‘국유기업 개혁’이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13일(현지시간) 국유기업 재편 가속화와 성장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국유기업 개혁을 심화하기 위한 지도 의견’을 발표했다. 관련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오는 2020년까지 결정적인 성과를 얻는 것이 목표인 이 지도 의견은 현재 시스템을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에 더욱 적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국유기업 시스템은 더욱 현대화하고 시장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이는 경제의 생명력을 더 높이고 지배구조를 강화하며 국영기업들이 리스크를 잘 견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잉생산 업종을 중심으로 국유기업을 정리·통합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중시 성장을 통해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새 지도 의견의 골자다.
이날 발표된 중국의 지난달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 개혁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8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6.1% 증가해 전월의 6.0% 증가에서 소폭 개선됐으나 시장 전망인 6.5%에 못 미쳤다. 또 올 들어 8월까지 고정자산 투자(농촌 제외)는 전년 동기 대비 10.9% 성장에 그쳐 1-7월 증가율인 11.2%와 같을 것이라면 전문가 예상치를 벗어난 것은 물론 지난 2000년(9.7%) 이후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고정자산 투자는 지난 2013년까지 10년간 연 20~30% 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둔화세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는 15만5000개 이상의 국유기업이 있으며 이들이 제공하는 일자리는 수 천만명에 달한다. 대부분이 지방 정부 산하이지만 자산 기준 세계 최대 은행인 공상은행이나 가업자 수 기준으로 세계 최대 이동통신업체인 차이나모바일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대형 국유기업도 100개가 넘는다. 국유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자본을 더 많이 끌어들이면 경제에 새 활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개혁안 시행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이클 페티스 베이징대 교수는 “국유기업 개혁안이 이론적으로는 매우 좋다. 중국은 더 많은 부를 정부에서 가계 부문으로 옮겨야 한다”며 “그러나 지난 30년간 혜택을 누려왔던 국유기업이 이를 버리는 것은 쉽지 않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준호 기자 baeh94@

애플 ‘아이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美 이동통신업체, 득보다 실 많다

기존 소비자 이탈 용이해져 대형 이동사들 피해 전망

애플이 신제품 출시와 함께 시행하기로 한 ‘아이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 미국 이동통신업체에 제1차 싸움의 격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일(현지시간) 애플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빌 그레이엄 시빅 오피토리움에서 개최한 미디어 행사를 통해 ‘아이폰6S’ 시리즈를 공개하고 12월 0시 1분부터 예약주문을 개시했다. 중국에서는 예약주문 개시 12시간 만에 초기 물량이 전부 소진되는 등 올해도 중국에서의 아이폰 열풍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엔 애플이 새롭게 발표한 ‘아이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 미국 통신업체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새 아이폰을 사는 소비자가 매달 기기 값을 내고 새 아이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애플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단말기 약정

정책은 단말기 약정 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있는 미국 이동통신업체에 희소식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기존 소비자 와 통신사와의 관계를 풀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가 매년 아이폰을 구매할 땐 유심카드를 재구매하면서 기존 통신사가 아닌 다른 통신사로 이탈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이동사들은 더 저렴한 요금 정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 특히 AT&T, 버라이즌 등 대형 이동사들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후발업체인 T모바일, 스프린트 등이 통신요금을 낮출 경우, 대형 이동사에서 이탈 고객이 더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동업체의 단말기 보조금 제도 폐지·축소로 인해 스마트폰 가격이 올라 애플의 아이폰 등 스마트폰 신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페북, 360도 촬영 동영상앱 개발한다

세계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인 페이스북이 가상현실(VR)을 현실화할 수 있는 서비스 구현에 시동을 걸었다.
페이스북은 360도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독립형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구형(spheral)’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익명을 요청한 관계자에 말을 인용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앱은 스마트폰을 기울이면 다양한 각도로 촬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앱은 애플 운영체제(OS)인 iOS

는 물론, 구글의 안드로이드 OS와 호환할 수 있도록 연구 중이라고 WSJ는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현재 연구는 초기단계이며, 언제 시장에 진출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앞서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모바일 기기의 다음 단계로 가상현실 시대가 올 것”이라고 강조하곤 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에 20억 달러를 들여 가상현실(VR) 헤드셋을 개발하는 ‘오кул러스’를 인수하기도 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리디아 고 “최연소 ‘메이저 퀸’ 됐어요”

〈18세 4개월 20일〉

LPGA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
16언더파... 4R 버디 8개 기록
‘슈퍼슬램’ 도전 박인비 8위

세계랭킹 2위 리디아 고(18·뉴질랜드)가 세계 골프 역사상 최연소 메이저 대회 우승 기록을 달성했다.

리디아 고는 13일 밤(한국시간) 프랑스 에비앙 레뱅의 에비앙 마스터스 골프장(파 71·64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에비앙 챔피언십(총상금 325만 달러, 약 38억 5000만원) 최종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8개를 기록하며 8언더파 63타를 쳐 최종합계 16언더파 269타로 2위 렉시 톱스(20·미국, 10언더파 274타)를 6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이로써 1997년 4월 27일생인 리디아 고는 지난 2007년 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 모건 프래셀(27·미국)이 수립한 최연소 메이저 대회 우승 기록(18세 10개월 9일)을 18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8)가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있다. 뉴시스

세 4개월 20일로 같아지웠다.

2012년 1월 호주여자프로골프(ALPG) 투어 뉴사우스 웨일스오픈에서 우승하며 남녀 프로 대회를 통틀어 최연소 우승 기록(14세 9개월)을 세운 리디아 고는 같은 해 8월 캐나다오픈에서 우승하며 LPGA 투어 최연소 우승 기록(15세 4개월 2일)을

경신했다. 또 이듬해인 2013년 2월에는 뉴질랜드 오픈 정상에 오르며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최연소 우승 기록(15세 10개월)을 수립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캐나다오픈에서 다시 한 번 우승컵을 거머쥐며 LPGA 투어 사상 첫 아마추어 동일 대회 2연패 기록을 세웠다.

“주인의식 갖고 도전하는 젊은이가 되자”

전경련, 대학생과 토크콘서트

이재욱 부회장·백종원 멘토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전경련은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2015 뉴스타트' 행사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뉴스타트는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토크콘서트로, 이번 행사에서는 '주인의식을 갖고 도전하는 진취적인 젊은이가 되자'를 주제로 제시했다. 이재욱 CJ 부회장과 비정상회담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다니엘 린데만과 알베르토 몬디 등이 멘토로 나섰다.

이재욱 CJ 부회장은 '행운아 마인드'를 가지고 스스로 무엇을 할지 먼저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했다. 그는 "열정이 운명을 결정한다"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열정은 얼마짜리인지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최근 요리프로그램으로 인기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원하는 것을 팔아야하며, 열정과 신념이 성공 비결"이라고 조언했다.

비정상회담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알베르토 몬디와 다니엘 린데만은 실례에 대한 두려움보다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잘 파악하고 꿈을 좇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전경련 이용우 상무는 "최근 '절포세대'라는 말이 급속도로 번지는 등 우리 청년들이 힘든 현실에 처해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젊은 세대의 기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이 상무는 이어 "청년들이 자신감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건설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지만 기자 redpill@



12일 서울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토크콘서트 '뉴 스타트 2015-젊음, 이룰때 욕망하라'에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꿈과 희망 등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전경련

서울모테트합창단, 내달 2일 정기연주회

하이드의 합창명곡 협연

서울모테트합창단(지휘 박치용)이 오는 10월 2일 오후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삶의 노래 영혼의 노래: 하이드의 합창 명곡'이라는 부제로 제99회 정기연주회

를 갖는다. 박치용 서울모테트합창단 상임 지휘자가 지휘를 맡고 소프라노 강혜정, 메조 소프라노 양승미, 테너 김승현, 바리톤 정복기, 오케스트라에 오케스트라디리지가 협연한다.

이번 공연은 1, 2부로 나뉘 다양한 장르

의 미사곡을 통해 더욱 풍부하고 정교하게 합창 음악을 표현해낼 예정이다. 1부에서는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의 동생인 미카엘 하이든의 합창 음악을 비롯, 오스트리아의 민속 선율과 대중 선율을 사용해 작곡된 하이든의 세속합창음악과 종교합창음악을 연주한다. 2부에는 오라토리오의 세계 3대 걸작으로 손꼽히는 하이드의 천지창조 미사를 연주한다. 김민정 기자 mj_kim@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무원 (승진) △통상협력국 심의관 이민철

◆보건복지부 ◇실장급 승진△인구정책실장 이동욱 ◇국장급 전보 △보건의료정책관 김강택

◆고용노동부 ◇부이사관 승진 △마성균 △노사협력정책과장 정경훈 △강원지청장 김영미 △울산지청장 이철우 ◇서기관 승진 △청조행정담당관실 윤옥균 △노동시장정책과 박병기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최대술 △고용서비스정책과 이도경 △직업능력정책과 홍석원 △근로기준정책과 강검은 △고용차별개선과 김소연 △공무원노사관계과 김남경 △운영지원과 전현철 △광주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장 장영조 ◇기술서기관 승진 △산업안전과 김신철 △산업보건과 김경연 ◇전보 △대구고용센터소장 유한봉 △고객지원팀장 김우동 △외국인력담당관 최준하 △청년취업지원과장 임영미 △성남지청장 황재자 △

안양지청장 서호원 △창원지청장 최관범

△대구서부지청장 함병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권호안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박영선

◆국토연구원 △감사실장 장인용△청사건축이전추진단장 전준호△연구지원센터장 오경근△경영지원센터장 김경동 △기획경영본부 연구조정팀장 김중은 △기획경영본부 인재개발팀장 박동신 △기획경영본부 예산기획팀장 이성식 △기획경영본부 대외협력팀장 박순업 △기획경영본부 총무관리팀장 이강식 △기획경영본부 재무회계팀장 김성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장 오재림 △이과대학장 이진호△교무처장 박동곤△연구처장(겸 산학협력단장) 천충일△입학처장 조남기△학생처장 강혜경△기획처장 오종산△대의협력처장 서수경△관리정보처장 천하봉△창업보육센터장 김구동△속명미디어센터장(겸 속대신보사주건) 안민호△글로벌빈익자원개발센터장 조정민△

한국어교육센터장 김경령△스포츠동맹부-숙명야카데미원장 고승익△아시아여성연구소 간사 이숙정

◆서울신문 ◇이사대우 승진 △편집국장 오승호

부음

▲강병주(삼성카드 금융영업담당 상무)씨 모친상 = 1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5일 오전 9시 30분, 02-3410-6915

▲김기유(티시스 사장)씨 부친상, 홍영화(전 광진경찰서장)씨 시부상 = 13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6일 오전 7시, 02-2258-5940

▲이병희(금강건설 대표)씨 모친상 = 13일, 대구전문장례식장, 발인 15일 오전 5시, 053-965-7201

▲안준천(전 중앙대 교수)씨 별세, 안철민(프라나이비인후과 원장)·세민(헨리부처말레이시아 한국대표)씨 부친상, 김성희(헤빈소아과 원장)씨 시아버지상 = 13일

지난해 7월에는 마라톤 클래식에서 우승하며 LPGA 투어 사상 최연소 상금 100만 달러를 돌고 주인공이 됐다. 그해 11월에는 LPGA 투어 최연소 신인상을 받았고, 올해 2월에는 최연소 세계랭킹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올 시즌은 19개 대회에 출전해 ISPS 한다 호주 여자오픈과 스웨임 스카츠 클래식, 캐나다 퍼시픽 여자오픈 등 4승 포함 12차례나 톱10에 진입했다. 그러나 메이저 대회와는 인연이 없었다. 이 대회 전까지 메이저 대회에 9차례나 출전했지만 3위만 두 차례 차지했을 뿐 우승은 없었다. 특히 올 시즌은 최연소 메이저 대회 우승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지 못하고 ANA 인슈어런스 공동 51위,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는 컷오프를 당하는 등 부진한 성적을 냈다.

한편, 슈퍼카리어 그랜드슬램에 도전한 박인비(27·KB금융그룹)는 버디 4개, 보기 1개로 3언더파 68타를 쳐 최종합계 5언더파 279타로 지은희(29·한화), 양희영(26)과 공동 8위에 머물렀다.

오상민 기자 golf5@

中출신 이주여성, 엑소와 함께 집으로

삼성·SM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엑소 중국 콘서트 통역사로 고용

삼성전자는 지난 12일 SM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가족들의 모국 방문을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임직원 기부금과 회사 지원금을 매칭그랜트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후원금'으로 모국 방문 비용을 마련하고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 3명을 중국 충칭에서 열린 EXO 콘서트 일정에 맞춰 통역사로 고용해 공연 준비를 돕게 했다.

매칭그랜트는 임직원이 비영리 단체나 기관에 후원금을 지원하면 기업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1대 1로 매칭해 조성하는 사회공헌기금 프로그램이다. 이주여성들의 가족 9명은 EXO 중국 콘서트에 함께 초대돼 콘서트를 관람하고 이후 일주일 동안 고향을 방문하게 된다.

2014년 2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 이주여성들은 모국어와 한국어를



중국 충칭에서 열린 엑소 콘서트에 통역사로 고용돼 함께한 결혼 이주여성들에게 엑소 멤버들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고루 사용할 수 있는 어학능력을 발휘, 자존감을 높이고 가족들은 유망 한류 연예인을 통역하는 자랑스러운 엄마, 딸의 소중한 기억을 갖게 됐다.

올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옥선(41)씨는 "5년 만에 진정을 방문하는데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중국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한류스타 EXO의 콘서트에 통역사로 일하게 돼 중국에 있는 친척들도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gutiy@

대한항공, 中 쿠부치 ‘사막화·황사’ 막는다

임직원 70여명 나무심기 참여

9년째... 올해 8만여 그루 심어

대한항공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중국 네이멍구 쿠부치 사막의 조림지 '대한항공 녹색생태원'에서 지창훈 총괄사장과 대한항공 임직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무심기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한항공 녹색생태원은 한국 측(사단법인 미래숲)과 중국 측(중화전국청년연합)이 한중우호 생태원 복원사업으로 공동 조성하는 조림지의 일부다. 대한항공 그린경영의 일환인 쿠부치 나무심기 활동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9년째 이어지는 행사로 매년 직원들이 현지 사막을 찾아 나무를 심는다.

대한항공은 이번 행사 기간을 포함해



쿠부치 식림행사에 참가한 지창훈 대한항공 총괄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네이멍구 사범대학 학생 및 교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대한항공

올 한 해 동안 총 8만여 그루의 나무를 이곳에 심게 된다. 녹색생태원은 연말까지 전체 면적 431만㎡에 약 128만 그루의 나무가 자라는 숲이 될 예정이다.

서울에서 직선 거리로 불과 1500㎞ 떨어진 쿠부치 사막의 면적은 1만6100㎢로 세계 9년째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모래바람은 우리나라 황사의 40%를 차지한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한화그룹, 임직원·시민들과 ‘걷기 캠페인’

‘한화 워킹포어스’ 300여명 참여

한화그룹이 임직원 및 가족들과 함께 친환경 걷기 캠페인을 펼쳤다.

한화그룹은 제조부문 계열사 임직원 및 가족 등 300여명이 12일 오후 서울 남산둘레길을 걸으며 기부하는 '한화 워킹포어스' 행사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화, 한화케미칼, 한화건설, 한화큐셀, 한화큐셀코리아, 한화첨단소재, 한화에너지, 한화도시개발 등 12개 계열사의 임직원과 가족, 사전 안내로 동참을 희망한 일반시민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기부금을 적립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각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걷거나 댄서 춤을 위생위치확인인스탬(GPS)으로 측정해 10m당 1원씩 자동으로 적립하여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화그룹 친환경 걷기 캠페인 '한화 워킹포어스'에 참가한 한화그룹 임직원과 가족들이 서울 남산 둘레길을 걷고 있다.

사진제공 한화그룹

참가자들은 4km가량의 남산 둘레길을 걸으며 스탬프를 찍는 미션을 수행하고, 미니콘서트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중·고·대학생 자녀와 함께 참여한 최진상 팀장(㈜한화 방산부문)은 "가을날씨가 좋아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가족들과 함께 걷기도 하고, 기부도 할 수 있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지만 기자 redpill@

국민은행,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가을 나들이’

6개국 50명 초청 에버랜드 구경

KB국민은행은 13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서 스리랑카, 베트남, 중국, 몽골, 캄보디아, 네팔 등 6개국 외국인근로자 50명을 초청해 '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 에버랜드 가을 나들이' 행사를 개최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충남 지역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행사는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적응 및 취업활동 지원 사업을 하는 전안외국인력지원센터와 함께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레판한(30·베트남)씨는 "에버랜드에서 신나는 놀이기구를



KB국민은행은 외국인근로자 50명을 초청해 '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 에버랜드 가을 나들이' 행사를 갖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KB국민은행

타고 사파리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특히 수목양용차를 타고 육로와 수로를 번갈아 이동하며 다양한 동식물들을 관람할 수 있는 로스트밸리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 같다"고 말했다.

김우림 기자 hura@



공병호의 독서산책

마이클 거버 '사업의 철학'

매년 백만 명 이상이 미국에서 창업 대열에 뛰어들지만 이들 가운데 절반인 40%가 창업 1년 만에 문을 닫는다. 5년 안에는 80% 이상이 문을 닫고, 또 다른 5년이 지나고 나면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 80%가 사라지고 만다. 결국 창업 10년 이상이 되면 생존 확률은 단 4%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 사업은 수많은 사람들의 로망이지만 대부분은 실패하고 만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 700만 명의 독자들이 선택했던 마이클 거버의 사업의 철학(다이어팅하우스)은 4%에 든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들이 실패한 다수와 어떤 차별점을 갖고 있는가를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창업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범하는 단계별 실수를 '턴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관찰하는 상장회사들 그리고 10년, 20년의 세월을 넘어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한 맥도날드, 페덱스, 디즈니 같은 기업들은 모두 유아기와 청년기를 통과해 성인기에 도달한 기업들이다. 흥미로운 점은 시작단계부터 이들 기업은 성인기 기업이 될 방식으로 사업 세계에 발을 내디뎠다는 사실이다. 어떤 방법으로 그들은 사업을 시작한 것일까. 여기서 '턴키 혁명(Turn-Key Revolution)'이라는 저자들의 독특한 개념이 등장한다. 턴키 혁명의 대표적인 사례가 사업 방식 프랜차이즈다. 사업방식 프랜차이즈는 무엇인가. "소규모 회사들에 이름을 빌려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의 운영 시스템 전체를 가맹점에 제공해 준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 때문에 턴키 혁명과 그

이민화 칼럼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창업활성화 다음 단계로 인수합병(M&A)이 주목받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언론은 금융 개혁과 M&A를 꼽고 있다. M&A는 대기업의 시장 효율과 벤처의 기술 혁신을 결합하는 가장 중요한 실천 대안이다. 구글, 알리바바 등 전 세계 선도기업들의 혁신 전략은 모두 M&A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M&A 부진의 원인은 무엇인가.

세계은행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M&A/GDP 비율은 일본은 물론 전 세계보다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한국 M&A의 대부분은 자산인수를 위한 구조조정형 M&A라는 점이다. 기술 벤처 투자의 회수 시장에서 상생형 M&A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도 안 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미국, 유럽, 이스라엘은 90% 내외이고 중국도 50%가 넘는다. 전 세계적으로 상장보다는 M&A가 압도적으로 중요한 벤처 투자 회수 시장인 것이다. 추경형 효율경제에서는 규모를 키우는 구조조정형 M&A가 중요했으나, 선도형 창조경제에서는 기술과 시장을 결합하는 상생형 M&A가 핵심이 된다. 한국은 이 흐름에

한국에 M&A를 許하라!

서 갈라파고스가 되어 가고 있다.

S&P에 의하면 2014년 미국의 전략적 M&A시장은 500조 원이 넘고, 중국도 300조 원을 돌파했다. 심지어 일본과 영국도 200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략적 M&A가 부진한 OECD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그 결과가 벤처의 혁신이 대기업의 효율과 결합되지 않아 성장과 고용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 작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대기업 경제력 집중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대기업의 사람 빼가기 등 편법 우회 방안,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규모의 시장 부재와 더불어 규제를 들 수 있다. 국민들의 우려는 개선되고 있고, 공정거래도 나아지고는 있다. 이제 남은 양대 과제는 △혁신거래 시장 △M&A 금융 규제다.

한국의 M&A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인수자로 나서야 한다. 구글이 네스트를 3조 원에 인수하듯 제값을 주고 기술 벤처를 인수하는 것은 대기업 경제력 집중보다 벤처 생태계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더욱 크다. 국민들의 반(反)대기업 정서는 제값을 주지 않고 무자비하게 인수하거나, 영업비밀 침해 등 불공정한 거래의 결과로 봐야 한다. 카카오의 김기산 인수에 대해 국민 다수는 오히려 호의적이지 않은가. 삼성전자가 미국의 루프페이와 스마트싱스를 적극적으로 M&A했으니 한국에서는 소극적이다. 이러한 대기업의 소극적인 국내 벤처 M&A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기화로 삼아 M&A거래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다.

이제 공정거래라는 전제하에 금융 규제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의 벤처 투자 대부분은 재무적 투자로 분석된다. 대기업의 전략적 투자가 적은 이유는 지주회사에 대한 CVC(Corporate Venture Capital)의 규제 때문이다. 금산분리 정책으로 재벌 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통해 타 기업에 투자할 수 없다. 전략적 투자가 적으니 상생형 M&A도 부진하게 된다. 한국 벤처 생태계의 가장 큰 규제는 대기업의 벤처 투자를 제한하는 지주회사에 대한 금융규제라고 할 수 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주요 기업들의 혁신은 CVC를 매개로 한 개방혁신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한쪽 팔을 묶은 페넌티를 안고 글로벌 게임에 임하는 격이다.

CVC의 역할은 외부 기술벤처에 대한 투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창조경제 혁신의 양대 주역은 창업 벤처와 사내 벤처다. 이들이 대기업의 시장 효율과 결합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IPO(상장)보다 M&A의 비중이 급속히 높아지는 이유다. CVC는 창업 벤처의 투자만이 아니라 사내 벤처의 스피드아웃에도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창업활성화 이후 다음의 국가 정책은 사내 벤처 활성화다. 실제 창업의 80%는 기업발 창업이므로 사내 기업가의 양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전략적 M&A와 CVC는 사내 벤처, 창업활성화에 이은 창조경제의 다음 목표들이다.

턴키혁명 개념으로 기업 성장 분석

혁명'이란 관점으로 분석한 다음에 이에 맞는 대안을 제시한다.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사업가들은 어떤 특정한 단계에 도달하면 실패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그 기업은 유아기,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로 나눠 어느 단계에서 어떤 문제점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가를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창업 이후에 유아기를 지난 기업은 필연적으로 유아기의 방식을 고수하면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 여기서 탈락자가 속출하게 되는데, 이때 승리하는 자들은 변신을 통해 청소년기로 나가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사업주는 안전지대를 넘어서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때 두 가지 선택을 앞에 두고 고심하게 된다. 규모를 축소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안전지대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전부를 걸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냐이다. 안타까운 일은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한 기업들은 모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기로에 선 기업가들은

것의 경이로운 성공이 가능할 수 있었다."

사업에 휘둘리지 않고 사업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사업 원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업 원형은 모두 6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 원형 모델은 당신의 고객, 종업원, 거래처, 금융기관에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어 일관된 가치를 제공해야 하며, 기술 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의해서도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흠집을 데 없이 질서가 잡힌 곳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것 등으로 구성된다. 3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마지막 3장은 턴키혁명을 구체화시키는 사업 개발 프로세스 9개, 즉 사업개발 프로세스, 사업개발 프로그램, 전략적 목표, 조직전략 등이 정리되어 있다.

내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혹은 이것을 하면 돈벌이가 될 수 있는데라고 생각하고 뛰어드는 사업은 대부분 실패하고 마는데 저자는 이를 잘못된 기업가 신화라고 부른다.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생각 9월 14일

如是我聞(여시아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에 부처님이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서 큰 비구 대중을 천이백오십인과 함께 계셨습니다.”[如是我聞 一時 佛在舍衛國 祇樹給孤獨園 與大比丘衆 千二百五十人俱] 금강경의 시작 부분이다.

모든 불경은 이처럼 여시아문(如是我聞)으로 시작된다. 부처님이 입멸할 때 10대 제자 가운데 하나인 사촌동생 아난존자에게 이 말을 날도록 했다고 한다. ‘여시’는 경전상의 부처님 말씀과 행동을 말하는 것이며 ‘아문’은 편집자인 아난이 자기의 견해가 아니라 오직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전달한다는 의미이다.

경전 편찬은 결집(結集)으로 시작됐다. 결집이란 특정한 시기, 특정한 장소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 부처님의 말씀을 종합하고 교정한 편집과정이다. 모두 여섯 차례 열린 경전결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아난존자였다. 아난존자는 1차 결집 때 대중 앞에서 경전을 암송한 인물이다.

모든 경전의 첫머리는 여섯 가지 필수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것을 육성취(六成就)라고 부른다. ①석가세존의 가르침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신성취(信成就):여시(如是) ②내가 직접 들었다는 문성취(聞成就):아문(我聞) ③설법의 때를 명시하는 시성취(時成就):일시(一時) ④설법을 한 것이

붓다였다는 주성취(主成就):불(佛) ⑤설법 장소를 밝히는 처성취(處成就):재사위국(在舍衛國) ⑥어떤 사람(대중)이 설법을 들었는가를 밝히는 중성취(衆成就):여대비구(與大比丘)의 여섯 가지이다.

그런데 육성취는 뉴스가 갖춰야 할 요건으로 꼽는 5W1H와 비슷한 것 같다. 어떤 사실을 왜곡하거나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언론의 일과, 부처님 말씀을 자기 견해를 섞지 않고 그대로 알리는 것은 서로 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5W1H를 갖추지 못한 보도는 성취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임철순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fusedtree@

온라인 와글와글



전업주부 자녀는 어린이집 종일반 제한...“우리가 ‘맘충’인가요?”

앞으로 맞벌이 부부나 일부 전업주부만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전업주부들은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현재의 절반인 6시간만 보육 서비스를 받게 돼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왜 주부는 논다고 생각하냐”, “전업주부를 ‘맘충’으로 비하하는 세상”, “워킹맘, 전업주부 다 해봤지만 아이 보고 집안일 하는 게 더 힘들다”, “일을 하고 싶어도 취직이 안 된 어려운 주부도 있고 전업주부라도 자기 시

간 활용할 권리는 있다”, “맞벌이는 어린이집까지 지원하고, 외벌이는 무슨 죄라고 어린이집도 못 다니게 해?”, “나라에서 맞벌이가 답이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네?”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맞벌이 가정도 어린이집 자리 없어 아이 못 맡기는 게 현실. 전업주부들까지 어린이집에 왜 아이를 맡기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전업주부, 워킹맘 차별하지 말고 소득 수준별로 지원하는 게 맞다”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오늘의 e이국향 www.baekn.com

‘정글의 법칙’ 합류한 EXID 하니

결그룹 EXID의 멤버 하나가 ‘정글의 법칙’에 합류한 소감을 밝혔다. 하니는 최근 서울 목동 SBS 사옥에서 진행한 SBS ‘정글의 법칙 인 니카라과’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정글에 다시 가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하니는 ‘정글의 법칙’에 출연한 소감을 묻자 “좋은 분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다”며 “(정글에) 꼭 다시 가고 싶다.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11일 첫 방송된 ‘정글의 법칙 인 니카라과’에는 김병만과 류담을 중심으로 전 농구 국가대표 선수 현주엽, UFC 김동현 선수, 배우 최우식, 조한선, 가수 김태우, 하니, 민아, 갯세븐 잭슨, 빅스 엔 등이 출연했다. 병만족이 찾은 21번째 생존 장소는 순수한 화산의 나라 니카라과다. 한 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황홀경을 간직한 호수와 화산의 땅인 니카라과는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청정 산림과 풍요로운 생태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최두선 기자 sun@



RAYCOOK GOLF

퍼터는 레이콕이 좋습니다

알에스스포츠 TEL. (02)3280-9607

데스크 칼럼

‘헬조선’의 위험한 미담

‘명함날라기:연 2,008,800원/ 신문배달:연 4,017,600원/ 사무보조:연 18,330,300원/ 청소알바:연 4,017,600원/ 도합 하면 1년 수익 약 2,800만원×10년= 2억8000만원’

영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한 장면이다. “내 집을 장만 하리라” 마음먹은 주인공 수남(이정현), 투잡, 쓰리잡을 넘 어 다(多)잡족인 수남이 그런 내 집 마련 계산이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돈을 모아도 집값은 뛰고 빚만 쌓인다. 약삭같 이 살지만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형편. 영화의 포스터 문구 는 ‘열심히 살아도 행복해질 수 없는 세상’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계층의 골짜기를 벗어날 수 없는 ‘불성실 한’ 나라. 요새말로 ‘헬조선’이다. 헬조선이란 말 그대로 ‘지옥(hell)’ 같은 한국이란 뜻이다. “아무리 해봐야 이 땅에선 안 돼”. 절망한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에 불인 이들이다. 흠수 저 물고 태어난 이는 끝까지 흠수저 인생을 살 뿐이란 자조 가 담겨 있다.

헬조선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출다. 이달 초 한 아웃도 어 브랜드가 조사한 한국인 마음온도는 평균 ‘영하 14도’. 세대별로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영하 17도로 가장 낮았 다. 그야말로 겨울왕국이다. 한테 이 조사에서 필자의 시선 을 끄는 부분은 따로 있었다. 언제 마음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느끼는가 하는 질문에 세대를 막론하고 ‘훈훈한 이야 기(뉴스)’를 접할 때를 꼽았다는 사실이다.

미담을 갈구하는 시대란 얘기다. 인간애가 묻어나는 삶 의 모습,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인생 드라마, 소외되고 힘



김수연

모바일팀장

없는 존재에 대한 따뜻한 손길... 희망이 보이지 않는 모진 현실에 염증난 사람들은 감동을 원한다. “똥 같은 세상”이 라고 욕하다가도 소외되고 약한 이들을 돕는 사람들, 불가 능해 보이는 꿈을 이뤄내는 사람들, 소소하지만 마음 따뜻 해지는 이야기에 “아직 살 만하구나” 위로받는다. IMF 경 제위기 때 모 일간지는 1면에 꼬박꼬박 미담기사를 싣기도 했다.

그래서일까. 요즈음 미담기사는 과잉 소비되고 있다. 언 론사들은 뉴스 스토리를 요구하는 독자들을 위해 내러티브 식의 미담을 ‘만들어낸다’. 포털들도 마찬가지다. 미담류의 기사들을 한데 모아 확실하게 보여준다. 미담기사는 확산 속도도 빠르다. SNS에서 ‘좋아요’와 ‘공유하기’를 누르도록

만드는 것은 얼마나 감정을 건드리는냐에 달려 있다. 위안 을 주거나 행복감이나 안도감을 느끼게 하는 기사는 공유 1 순위다.

그러나 미담기사가 넘쳐난다고 좋은 것인지, 무작정 ‘좋 아요’를 눌러도 되는 것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미담기사 에는 함정이 있다. 무엇보다 사회의 문제를 개인 차원의 문 제로 환원시킬 위험성이 크다. ‘아름다운 장면’에만 포커스 를 맞추다보니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낸 사회의 구조와 체 제가 은폐된다. 미담에 등장하는 약자들을 한번 떠올려보 라. 가난하거나 소외된 이들, 미혼모, 장애인, 독거노인, 더 나아가서는 유기동물들까지. 이들을 역경이나 곤란에 놓이 게 한 사회적인 모순과 병폐는 숨겨진다. 애정과 노력, 의지 로 극복하는 모습이 그저 ‘좋지 아니한가’인 거다.

희귀 유전병을 지닌 오스트레일리아의 작가 겸 방송인 스텔라 영은 작년 TED강연에서 장애를 딛고 일어난 이야 기나 이미지를 ‘감동 포르노(inspiration porno)’라며 비판 했다. 장애를 통해 ‘당신도 할 수 있다’는 식의 감동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장애인을 물건화해 비장애인에게 파는 것과 마찬가지로는 것이다. 문제의식을 상실한 채 긍정 지상주의 를 부각하는 미담도 마찬가지다. ‘인간’을 얘기하는 것 같지 만 실제로는 ‘인간’을 물건화한 편협한 시각이기 때문이다. 무심코 ‘좋아요’를 누르고 권유한 미담기사가 실은 이런 맥 빠진 ‘포르노’였다면? 감동에 치우친 미담에 안주하는 한 헬조선은 결코 자욱을 벗어날 수 없다.

queen33@

설경진의 루머속살

자본시장부 차장

국민연금 公社화와公私구분

〈기금운용본부〉



정치권이 사사건건 반대하고 못 잡아 먹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물어뜯는 모 습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를 공사(公社)화하려는 움직임에서는 모처럼 국회가 하나로 일 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야가 국민연금공단 산하인 기금운 용본부를 독립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 의했다. 정부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아 해당 법안은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와 정치권이 일치된 의견으로 일 을 처리하는 것은 공사(公私) 구분이 잘 되지 않는 일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광경 이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 국민연금 기 금운용본부 공사(公社) 추진에 대해 정 치권과 관료들이 공사(公私) 구분을 잘 하고 있는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기금운용을 공사로 해야 독립성을 보 장받고, 고연봉의 능력있는 운용인력을 채용할 수 있어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법 개정 주된 이 유다. 그렇다면 한국전력공사, 대한무 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현재 다른 공사들은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가. 공사로 전환 해야 독립성이 보장된다면 왜 현재 다 른 공사들은 독립적인 경영을 하고 있 다 는 평가를 받지 못할까.

철밥통, 신의 직장, 방만경영, 관피아, 정피아는 어디를 두고 하는 말인가. 바 로 현재 공사들을 두고 하는 말 아닌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공사화해야 한 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 중 하나 는 캐나다 연금이나 캘리포니아 연금, 네덜란드 연금, 영국 연금 등 해외 연금 에 비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낮다는 것 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처럼 공사를 따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캘리포니아 연금이나 영국 연금 등은 공사를 따로 두고 있지 않 는 데 수익이 좋은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수익률 비교 역시 명백하게 비교 기준 이 잘못됐다.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해

야 한다는 사람들은 최근 3년간 수익률 이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 연금에 비해 국민연금이 낮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결론을 먼저 내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짜깁기식’ 통계다. 미 국, 캐나다 등 선진국 연금은 주식과 대체투자 비율이 높고 국민연금은 채권 투자 비율이 높다. 채권투자 비율이 높 은 것은 그동안 과거 정권에서 채권 매 입 수요가 없는 어려운 시기마다 국민연 금에 떠넘긴 결과이기도 하다.

최근 3년은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주 식시장이 호황을 맞았다. 이들은 국민연 금이 투자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근 거로 이 시기만의 수익률 비교를 제시하 고 있다. 하지만 10년간의 수익률로 놓고 보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야당은 전북지역 기금운용본부 이전 문제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인 지는 모르겠으나 기금운용의 공사화에 대해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섰다.

세계적인 펀드매니저를 비롯해 최고 의 투자 전문가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공 사화해야 한다는데 그런 전문가들이 과 연 전북까지 내려올지도 의문이다.

국민연금이 손해를 본 투자에 대해 무엇이 문제였는지부터 점검하면 답이 나온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투자 한 SOC나 채권, 그리고 일부 재벌 뒷바 라지로 손해를 본 것이 주된 이유다.

정치권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公社)화 추진에 앞서 공사(公私) 구분부터 하기를 바란다.

skj78@



구 장 희 한화생명 CPC전략팀 차장

내 보험료, 싼걸까 비싼걸까



올해 9월부터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감독 규정을 개정해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보험 상품 비교 공시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5년여 만에 개편된 것으로, 보장성보험은 ‘보험가격지수’가 도입되고 저 축성보험은 보험사가 수수료(사업비)를 일 마름이나 떼어 가는지를 공시해 한눈에 알 아볼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먼저 ‘보험가격지수’는 보험사 업계 평균 보험료 대비 해당 상품의 보험료 수준을 보 여주는 것으로, 100을 넘으면 평균보다 비 싸다는 뜻이고, 100보다 적으면 평균보다 저렴하다는 뜻입니다. 즉, 동일한 보장을 하 는 상품들끼리의 상대평가가 가능해진 것 이죠.

크게 종신보험, 정기보험, 질병보험, CI보 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 실손의료보험 7가 지로 나누어 공시하는데, 전체 생명보험사 가 파는 보험상품을 모두 비교할 수 있습니 다.

하지만 보험상품은 보험료만 보고 결정 해서는 안됩니다. 수납년 동안 내 자산을 관 리해 줄 회사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안정 적인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

한지, 상품 보장 외에 보험료 자유납입·중도 인출 같은 부가기능이 탑재되어 있는지 등 도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축성보험은 적립금과 적립률을 공시하 게 되어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에서 수수료 성격의 사업비를 제외 한 금액을 해당 상품에서 정한 비율로 부리 하는 방법으로 적립됩니다. 즉, 사업비가 적 어야 적립금액도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매월 보험사가 정하는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는 ‘금리연동형’ 보험은 예상수익률 을 선택하면 보험계약 후 7년 이내, 8~10년, 10년 초과 시의 예상 적립비율을 구간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고객 입장에서는 유리합니 다.

고객이 선택한 펀드의 수익률에 따라 적 립금이 부리되는 ‘변액’ 보험 역시 유사한 방 법으로 공시됩니다. 다만, 변액보험은 펀드 수익률이 적립금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 기 때문에, 단순히 사업비율이 적은 상품만 을 찾기보다 시장 변화를 살피면서 펀드변 경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익률을 극 대화하는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김 희 진 자본시장부/heejin@

ELS 녹인, 위험부터 챙겨라



주요 ELS 기초자산 중 하나인 홍콩항셍 중국기업지수(HSCEI, 이하 H지수)가 급락 하면서 녹인(Knock-In) 손실 가능성에 대 한 이야기가 나온다.

지난 8월 종순 9000대로 하락한 H지수는 11일을 기준으로 9700대에 머무르고 있는 데 이는 지난 3개월 전보다 30% 하락한 수 준이다. 업계에서는 지수가 8000대로 내려 간다면 상당수 상품이 녹인 구간에 진입할 거라고 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과생결합증권 손실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며 증권사 건전성, 유동성, 수익성 지표 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업계의 상황을 보고 있자니 아쉬운 마음 을 지울 수 없다. 금융당국이 H지수 하락으 로 인한 증권사의 신용위험 가능성을 발빠 르게 점검한 만큼 ELS 불안전판매 여부 및 대책 등을 세세히 검토했다면 어땠을까.

과거 몇 번의 녹인 발생 경험 때문인지 투 자자들은 예전과 같은 극단적인 공포에는 휩싸이지 않는 모습이다. 하지만 업계에서 는 ELS의 상품 구조가 더욱 복잡해져 투자 판단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ELS는 기초자산으로 HSCEI 지수 등 해외지수를 사용하고 기초자산의 개수 도 1개에서 2개, 3개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때문에 기초자산으로 사용된 지수 중 하나만 하락하더라도 손실이 나고 투자 위험도가 높아지는 등 투자 판단이 점점 어 렵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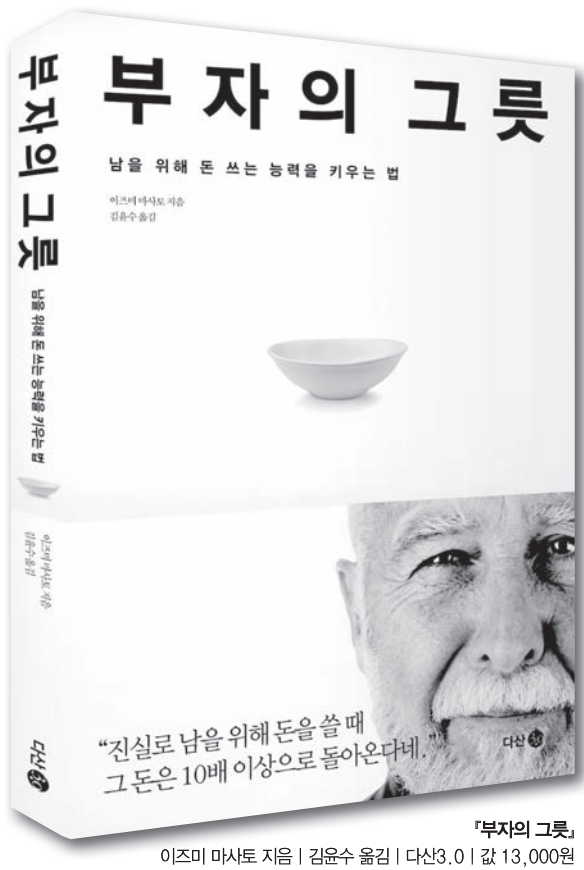
현재 투자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H지수가 추가 하락할 거라고 예상한다면 이익을 포기하거나 일부 손실을 떠안으면서 환매에 나설 것이고, 더 이상 하락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상품을 유지할 것이다.

결국 H지수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판단에 따를 일이다. 하지만 일반투자자 중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투자자는 얼마나 될까.

한 증권사 CEO가 과생연계 상품을 두고 “위험등급을 매기고 두꺼운 투자설명서에 여러 번 서명하도록 하겠다”고 뉘 일은 아니다”며 “이것은 마치 위험한 화학공장 을 주택지역 안에 들어오도록 허용하고 나 서 안전 점검하고 철저히 검사하면 된다는 이야기와 다를 것이 없다”고 꼬집은 데는 나 름의 이유가 있다.

“나는 평생 부자가 되지 못할 줄 알았다!”

25만 명의 삶을 기적적으로 변화시킨 최고의 부자수업, 『부자의 그릇』



▶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냐? 이런 정말 신기한 일인데, 돈은 그만큼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모여든다네. 10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0억 원, 1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억 원이 모여게 돼.”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자신의 그릇만큼 담는다

“나는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 월급이 적어서? 재테크를 못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를 이런 기술적이거나 방 법론적인 문제로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질문을 바꿔보면 보다 근본적인 돈의 본질 을 볼 수 있다. 부자가 되려 하기 이전에 돈을 다 루는 능력, 즉, 자신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 사람 은 누구나 각자 다를 수 있는 돈의 크기가 다 르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 누군가 아무리 많은 돈과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자신의 그릇만큼만

담을 수 있다.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지 않고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씨를 뿌리 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는 것과 같다.

『부자의 그릇』(다산3.0)의 저자 이즈미 마사 토는 일생을 ‘돈의 교양과 본질을 전파하는 데 바쳐온 일본 최고의 경제금융교육 전문가로 활 동하면서 경험한 돈의 본질과 인간관계에 관한 명쾌한 통찰을 한 권에 담아냈다. 이 책은 그의 실제 사업 실패담을 바탕으로 집필한 교양 소 설로, 한때 12억 연매출의 주먹밥 가게 오너에 서 3억 원의 빚을 지고 나라으로 떨어진 한 사 업가가, 우연히 만난 부자 노인과 7시간 동안 나눈 돈과 인생의 비밀에 관한 대화로 구성되 어 있다.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젊었을 땐 돈을 버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나 이가 들어보니 돈이 와서 담기는 것이더라며 이 야기를 시작한 부자는 부자의 1, 2단계, 즉 남을 위해 돈을 벌거나, 나를 위해 돈을 버는 단계를 뛰어넘어 3단계인 ‘남이 나를 위해 돈을 벌여주 는 단계’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7시간 동안 나눈 노인과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선택, 경험, 신용, 리스크 등 부자들이 돈에 대해 생각하는 그릇의 크기를 깨우치고,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조언 을 통해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변하는 것 을 느낄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도 이러한 ‘돈의 본질과 관점’ 에 대해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문

화가 없었다. 이러한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저 자는 파이낸셜 아카데미의 부자수업을 통해 25만 명이 넘는 수강생들의 돈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켜 세상을 놀라게 했다.

저자는 늘 말한다. “돈이 만능은 아니지만 돈을 다루는 방법을 바꾸면 인생도 바꿀 수 있다”라고. “나는 언제쯤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평생 부자가 될 수 없을 거 같아”라며 걱 정과 고민에만 빠져 있다면, 『부자의 그릇』을 통해 돈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고, 돈을 다 루는 능력을 키워보길 바란다.

문의 070-7606-7445

30대 그룹 가치분석

① 삼성그룹

올 해 초부터 승계구도와 지배구조 개편이 국내 경제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아니나 다를까 국내 최대 대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이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헤지펀드의 공격을 받아 혼란을 치렀다. 이어 승계구도를 앞두고 롯데그룹에서는 형제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결국 경영권 다툼으로 변했다. 이 같은 국내 경제의 상황은 급기야 정치적 논리와 맞물리면서 국내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투명성에 대한 여론이 거세졌다. 게다가 국내 대기업집단 내 지배구조상 중요한 위치에 있는 비상장사들의 투명성을 위한 기업공개 등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내 대기업집단 내 비상장사들이 기업공개로 상장될 경우 각 그룹별 시장가치는 큰 변동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국내 경제계의 버티목 역할을 하고 있는 30대 그룹의 그룹가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한다.

그룹 시장가치 10년새 2.4배↑... '이재용號' 400조 시대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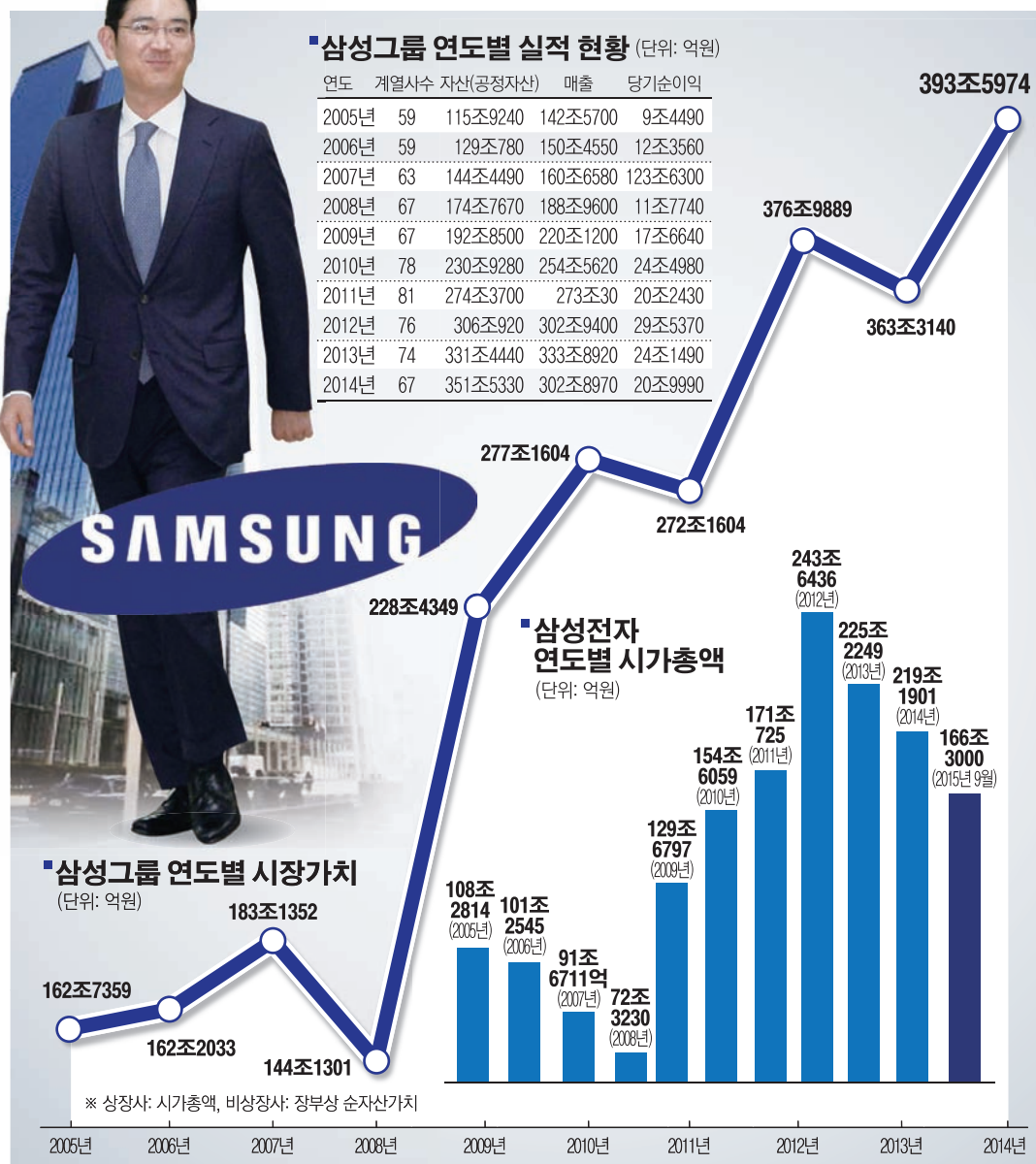
‘포스트 이견희 시대.’ 삼성그룹이 현재 안고 있는 지배구조상 최대 이슈다. 이견희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부회장은 그룹 경영권과 지배권 승계 및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다. 특히 이 부회장은 확실한 오너 경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이견희 회장이 이뤄낸 강력한 성장세를 어떻게 유지하면서 그룹 가치를 높이느냐는 숙제를 안고 있다.

지난해 평가가치 393조5974억
금융계열사들 시총 약진 뒷받침
비상장사 잇단 IPO 가치 높여

당기순익 20조, 5년새 가장 저조
4분기 삼성전자 실적·주가 주목
성장 회복·유지 이 부회장 숙제
지배구조 개편때 헤지펀드 방어도

◇첫 400조원 클럽 코앞 = 삼성그룹은 최근 10년간 그룹 시장가치가 2.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나이스인용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그룹의 전체 평가가치(상장사+시가총액, 비상장사+순자산가치)는 393조59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10년 전인 2005년 말 기준 162조7359억원과 비교해 140% 이상 뛴 금액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162조2033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듬해 183조1352억원으로 늘었다. 이런 모습은 2008년까지 이어지다가 2009년 말 200조원을 훌쩍 넘는 228조4349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2년에는 376조9889억원으로 전년도 277조1604억원과 비교해 100조원가량 늘어나는 기염을 토했다. 지난해에는 그룹 전체 가치가 393조원을 웃돌면서 국내 최초로 400조원 시대를 코앞에 두게 됐다.

특히 삼성그룹 전체 시장가치 변화에는 삼성전자의 주가 변화에 따라 큰 변동폭을 보인다는 한계에서 벗어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연도말 기준 시가총액이 72조원으로 떨어진 지난 2008년 삼성그룹의 전체 평가액은 144조원으로 전년도 183조원과 비교해 39조원이 증발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219조1901



억원으로 전년도 225조2249억원과 비교해 6조원가량 빠졌지만 그룹 전체 평가액은 393조원대로 전년도 363조원대와 비교해 30조원가량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금융계열사들의 시가총액 약진과 비상장사들의 사업구조조정을 통한 잇단 기업공개가 그룹 가치를 높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그룹 전체 평가액의 기동인 삼성전자의 주가가 예전 모습을 찾지 못해 9월 말 현재 166조원으로 지난해 말 기준 219조1901억원과 비교해 50조원 이상 증발했다. 이에 따라 올 4분기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떤 행보를 걷느냐에 따라 삼성그룹 가치 400조원 시대 달성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그룹 성장지표 회복 관건 = 삼성그룹의 전체 매출은 지난 2001년 이후 2002년과 2004년을 제외하고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302

조89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룹 전체 당기순익도 20조999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3%가량 줄어드는 등 최근 5년간 가장 저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20조원대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최근 낮은 소유 지분으로 거대한 대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순환출자 구조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단단한 승계구도 구축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헤지펀드 등 약점을 파고 들어오는 자본 세력에 대한 부담도 커진 것이 현실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확실한 승계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실적 개선과 함께 그룹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유섭 객원기자 hyson0214@

삼성메디슨, 새 캐시카우 될까

삼성전자 2011년 인수, 계열사로
장외시장 K-OTC 9000원선 거래
매출 매년 10% 증가... 재무 탄탄
수익성은 숙제... IPO 가능성도

삼성메디슨이 지난해 개장한 K-OTC 시장에서 활발한 거래를 보이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삼성메디슨은 K-OTC에서 주당 9000원대에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일일 거래대금도 1억원선을 유지하는 등 등록 기업 중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K-OTC 거래금액으로 산출한 시가총액도 1조2000억원선에 육박하는 등 순자산가치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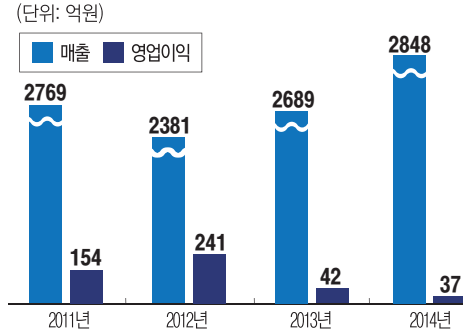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지분 68.45%를 인수하면서 메디슨을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인수 직전 삼성메디슨의 사업연도 말 기준 순자산은 1800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이후 2000억원대로 올라서더니 매년 10% 내외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반기보고서를 통해 밝힌 회사의 순자산은 2532억원 선이다. 재무적인 안정성도 탄탄한 모습이다. 올 6월 말 기준 삼성메디슨의 부채비율은 32%에 불과하다. 자본이 부채총액보다 3배가 많다는 것이다. 유동비율도 200%를 훌쩍 넘는 등 현금 유동성에도 원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 6월 말 현재 삼성메디슨의 유동자산은 1550억원으로 유동부채 675억원보다 2.3배가 많다.

하지만 매출 실적은 소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제자리 걸음 수준이다. 연도별 매출 현황을 보면 2011년 2769억원, 2012년 2381억원, 2013년 2689억원, 2014년 2848억원 등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매출은 1393억원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수

삼성메디슨 현황

- 1 삼성전자 2011년 인수, 계열사로 편입
- 2 장외시장 K-OTC 시총 1조2000억원
- 3 순자산 2532억, 유동자산 1550억
- 4 부채비율 32%

삼성메디슨 매출·영업이익



익에서도 조금은 저조한 모습이다. 연도별 개별 기준 회사의 영업이익은 2011년 154억원을 보였다. 이듬해 241억원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3년 42억원, 2014년 37억원으로 인수 당시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저조한 실적을 내고 있는 해외법인에 대한 구조조정도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부실 위험이 높은 법인을 정리하고 경쟁력 강화에 나선 것이다. 또 삼성메디슨이 M&A 시장에 나서 파인수 기업을 찾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메디슨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삼성메디슨을 삼성전자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다가 올해 3월 돌연 현재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계 일각에서는 삼성메디슨의 사업 부문 확대와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기업공개(IPO)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유섭 객원기자 hyson0214@



정다운 보름달, 情담은 한가위



매년 명절 때마다 따라다니는 수석어가 있다. '최악의 경기', '가벼워진 지갑' 등 생활경제 전반에 대한 어려움이 가득 담긴 단어들이다. 이번 추석도 사정은 비슷하다. 부동산 경기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이번엔 주식이 발목을 잡았다. 중국 쇼크가 우리 시장까지 덮치며 개인투자자들의 계좌를 초토화시켰다. 여웃돈을 챙겨 맘 편히 명절을 보내려 했던 가게에 잔물을 확 끼얹은 셈이다. 그래도 명절은 보내야 한다. 비하지 않더라도 실속형 제품을 찾아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선물해야 하고, 오랜만에 보는 조카들 용돈도 조금씩은 내밀어야 마음이 편하다. 사전예약판매 등 여러 유통회사 쇼핑정보를 활용하면 더 할인된 가격에 선물을 준비할 수 있다. 이투데이는 얹어진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올리는 특히 작으면서도 실용적인 추석 선물을 소개한다. 유통팀

현대백화점, 실속형 세트

지중해 맛과 향... 이탈리아 파스타 세트

현대백화점은 올 추석 명절을 맞아 실속형 선물 세트를 내놓았다.

현대백화점은 미국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에서 주인공들이 브런치를 즐겨 유명해진 '사라베스'의 추석 선물 세트를 업계 최초로 선보인다. 사라베스는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잼 제조사이자 페이스트리 요리사로 국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지난달 21일 판교점에 사라베스 레스토랑 국내 1호점을 오픈하면서 이번 추석 선물 세트를 기획했다. '사라베스 잼 3종 세트'는 오렌지 살구 마멀레이드 잼, 피치 에프리트코트 잼, 스트로베리 라즈베리 잼으로 구성됐다. 판매가격은 5만9000원.

현대백화점은 또 지난달 21일 판교에 국내 1호점을 연 '이탈리아'를 기념하기 위해 '이탈리안 파스타 3종 세트'를 내놓았다. 이탈리아는 마켓(Grocery)과 레스토랑(Restaurant)이 결합된 '그로스란트(Grocerant)' 형태로 현재 이탈리아(12개점), 일본(3개점), 미국(2개점) 등 총 21개점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식품 브랜드다. 특히 2010년 미국 뉴욕 진출 이후 뉴욕객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면서 글로벌 프리미엄 식품 브랜드로 급부상했다.

이탈리안 파스타 세트는 지중해 바람에 말린 파스타 '알렐트라', 토스카나의 태양을 받고 자란 산 마르자노 토



마토와 이탈리아 프리미엄 올리브 오일 '로이' 등으로 구성된 정통 이탈리아 파스타 선물 세트다. 판매 가격은 6만3000원.

현대백화점은 참굴비 일관세트도 출시한다. 8kg 이상의 굴비 20마리로 구성된 이 제품은 온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실속 굴비세트다. 최근 조임량 감소로 가격이 10~20% 오른 굴비 선물세트 중 가장 저렴한 선물세트로 전국 15개 점포에서 만나볼 수 있다. 가격은 10만원.

홈플러스, 최현석 세트 컬렉션·효도 가진

부모님 건강 챙기고 '효자' 칭찬 받자

홈플러스는 올 추석 명절을 겨냥한 대표 상품으로 '최현석 세트 컬렉션'과 '효도 가진'을 선보였다.

최현석 세트 컬렉션은 인기 세트 최현석이 엄선한 '1++ 등급' 한우 선물세트 3종이다. 이 상품은 DNA 검사와 각종 유해성 잔류물질 검사를 거친 최고급 농협 안심한우와 연간 수확량이 많지 않은 백화고를 주된 제작하는 방식으로 한정 판매하는 고급 선물세트이다.

최현석 세트 컬렉션 '유기농 백화고(120g) 친환경 1++ 한우 구이'(등심 1kg, 안심 0.5kg, 채끝 0.5kg) 세트는 정상이 59만원, '유기농 백화고(120g) 1++ 한우 갈비'(2kg) 세트는 정상이 32만원이다. '냉장 맞춤 세트'는 선물하고 싶은 부위와 중량별로 즉석에서 제작하며 가격은 약 10만원대부터 시작한다.

홈플러스는 이달 30일까지 올 추석 기획행사를 통해 총 1만대 물량의 효도가진 8종을 판매한다. 이 중 '휴테크 안마의자 H7'는 총 68개의 에어셀로 전신 케어가 가능하며 어깨위치 자동맞춤 기능, 4종류 자동안마 프로그램,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슬라이딩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가격은 158만7600원.

'휴테크 리모컨 발 마사지기'는 발바닥의 52개의 지압 돌기에 의한 지압 주무름 안마와 발등의 에어백 마사지



로 발 전체를 입체적으로 안마해주며, 패드 부분만 분리해 세탁할 수 있다. 가격은 9만9000원.

'휴플러스 어깨안마기'는 손 주무를 방식으로 가장 피로를 많이 느끼고 목치기 쉬운 어깨와 목을 집중 안마해준다.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사용, 보관할 수 있으며 6만9800원에 구입 가능하다.

'메치홀스 스마운동기'는 스마 운동 효과를 도입한 운동기구다. 전신운동 효과가 있으며 균형감각 향상에 도움을 준다. 가격은 82만8000원이다.

롯데백화점, 윤가명가 선물세트

받는이의 품격 올려주는 프리미엄 식품

롯데백화점은 추석을 맞아 다양한 브랜드의 이색 선물세트를 제공한다.

먼저 윤미월 셰프가 추천하는 '윤가명가'에비뉴얼 본점(입점)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윤 셰프는 에비뉴얼 웰드타워점에 입점한 이탈리아 프리미엄 식료품 전문점 'PECK', 일본 도쿄 긴자에서 한식당 '윤가'를 운영하는 유명 셰프다.

'PECK 세트'는 PECK의 품격을 더한 최고급 과일잼 6종 세트다. PECK의 잼은 일조량이 풍부한 지중해에서 재배한 과일과 꽃만을 사용해 맛과 향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살구잼, 체리잼, 무화과잼, 복숭아잼, 라즈베리잼, 스트로베리잼으로 구성돼 있다. 가격은 19만원.

'윤가명가 칠첩보원'은 영양을 보충하기 쉽게 만들어 간편한 한 끼 식사 대응으로 좋은 상품이다. 동의보감을 기본으로 복령분말, 자황즙, 연필(꿀)을 혼합해 만들었다. 가격은 30만원.

'프리미엄 고추장세트'는 뉴욕에 한식 레스토랑 '단지'를 열면서 미술관 가이드에서 별점을 받은 후니킵 셰프가 만든 정통장이다. 후니킵 셰프의 특별 레시피와 식재료를 이용한 프리미엄 에디션 상품으로 선물하기 좋다.



가격은 7만원.

'삼진어묵 프리미엄 세트'는 부산시 최고 어묵 '삼진어묵'의 수제 어묵세트다. 삼진어묵은 1953년부터 3대째 그 맛과 풍미를 계승해 오고 있다. 찌서 만든 어묵이나 고로케 어묵 등을 통해 어묵을 현대적 이미지로 바꿨다. 가격은 3만원.

'다 푸르 구르몽드 프레스티지세트'는 화려한 빈티지된 케이스에 라 푸르 구르몽드의 대표 메뉴 5종을 담아 구성한 고급 프렌치 선물세트다. 가격은 11만원.

신세계백화점, 드라이에이징 한우

4~6주간 숙성시켜 육질 품미 극대화

신세계백화점은 식품생활본부장이 추천하는 올 추석 선물세트 2종을 공개했다.

먼저 숙성으로 맛이 깊은 '드라이에이징 한우 스테이크'다. 그동안 양식 고급 메뉴로 손꼽히는 스테이크를 즐길 때 많은 사람들이 마블링의 상태로 육류의 상태를 판가름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기를 공기 중에 노출한 상태에서 숙성시키는 '드라이에이징' 방식을 활용한 스테이크가 관심을 끌며, 이번 추석에도 드라이에이징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한우를 드라이에이징하면 육질이 더욱 부드러워진다. 동시에 한우 특유의 풍미도 높아져 최근 찾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추석에 등심 스테이크와 채끝 스테이크를 4~6주 건조 숙성시킨 드라이에이징 한우 스테이크 1호와 2호를 각각 50만원, 40만원에 판매한다. 지난 8월 개점한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프리미엄 식품관 신세계푸드마켓의 경우 대형 숙성실을 갖춘 드라이에이징 코너를 별도 마련했다.

두번째 추천 메뉴는 국내 양조장들과 공동으로 개발한 다양한 '우리 전통주 세트'다. 전통주는 쌀과 물, 누룩만을 사용해 전통 제조 방식으로 빚고, 인공이 아닌 자연으로 숙성시킨 게 특징이다. 여기에 신세계가 세련되게



디자인한 주병과 라벨을 가미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증류주, 과실주, 약주 등 3가지 주종의 특성을 반영해 현대적인 미감으로 아름다운 병과 패키지를 디자인했다.

술방 리큐르 홍주 유자 세트 11만원, 술방 명인 감홍로 술잔 세트 8만8000원, 술방 소주 보리안동 세트 8만8000원 등 다양한 전통주 세트를 만나볼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2013년 8월 '한국 전통주 진흥협회'와 MOU를 맺고, 중소 주조장과의 동반성장에 힘을 쏟고 있다.

한우자조금, 우리한우 장보기세트

26일까지 10~50% 할인, 놓치지 마세요

명절 때마다 고마운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오랜 전통이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선물 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은 한우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의 건강을 위해 좋은 식재료인 한우는 단백질, 아연, 철분, 비타민 등이 풍부한 고단백질의 영양 덩어리다. 이는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 왜 한우가 선물로서 가장 인기가 많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번에 한우자조금이 한우114 할인몰을 통해 선보인 '우리한우 장보기세트'는 정성은 물론 가격까지 만족할 수 있는 실속형으로 준비한 것이 특징으로 총 3종이다.

'우리한우 장보기세트 1호'는 등심(500g), 국거리(500g), 불고기(500g) 등이 각각 1팩씩 구성되었으며, 할인판매가는 1+등급이 8만3000원, 1등급이 8만9000원이다. 국거리(500g) 1팩, 불고기(500g) 2팩으로 구성된 '우리한우 장보기세트 2호'는 1+등급 기준으로 6만1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주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구성된 이번 장보기세트는 22일까지 판매되며 배송비는 무료이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한우114 홈페이지(www.hanwoo114.co.kr)를 참고하면 된다.

한우자조금은 이와 함께 26일까지 대형유통업체와 연



계하여 한우선물세트를 10%~50% 할인 판매한다.

농협의 경우 '농협안심한우 세트1호'를 24% 할인된 12만2000원(1+등급, 등심, 불고기, 국거리 각 0.7kg)에,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은 갈비는 이마트에서 '황성한우갈비세트'로 17만5000원(1등급, 3.6kg)이다.

한우114할인몰과 대형마트의 할인행사를 놓쳤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한우자조금은 오는 22일과 23일 이들 동안 서울 청계광장에서 추석맞이 한우 직거래장터를 열고 등심, 채끝, 갈비, 양지, 사골, 우족 등 다양한 부위의 한우를 시중가보다 2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한다.

한국인삼공사, 정관장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연령별 ‘맞춤 홍삼’

정관장은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제품 구매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추석 프로모션 ‘올해만큼은 당신께 만큼은’ 행사를 9월 28일까지 진행한다.

특히 신규 멤버스 회원 가입 시 홍이장군 목쿠션 또는 정관장 장바구니를 사은품으로 증정해 신규 고객과 대량구매 고객에 대한 혜택을 강화했다. 롯데, 삼성, 하나카드로 로드샵에서 15만원·30만원·45만원·60만원·75만원·9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2만원·3만원·4만원·5만·6만원씩 청구할인 혜택도 있다.

정관장은 연령대에 어울리는 다양한 정관장 홍삼 선물을 제안했다. 평소 홍삼의 맛에 익숙한 어른에게는 ‘수·마음을드리다(35만원) 세트’가 좋다. 홍삼 총 생산량 중 2%만 생산되는 희소가치가 높은 지삼을 함유한 홍삼정 리미티드와 홍삼탄리미티드로 구성된 고급스러운 선물 세트(12만원)는 장소에 상관 없이 홍삼을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회생활로 바쁜 장년층에게는 편리한 홍삼 제품들로 구성된 ‘진·예를드리다(22만원) 세트’가 어울린다. 정관장의 대표 상품인 홍삼정플러스와 섭취가 간편한 홍삼정환, 홍삼분말이드로 구성된 다양한 홍삼 제품을 즐길 수 있다.



20~30대 나 단체 선물로 실속형 제품을 찾는 소비자를 위해 올해 새롭게 3종의 선물세트가 출시됐다. 홍삼 농축액을 간편한 형태로 섭취할 수 있는 홍삼정에브리타임과 홍삼정 타블렛으로 구성된 ‘현담 세트

(12만원)’는 장소에 상관 없이 홍삼을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홍삼 본연의 깊은 맛을 즐기려면 홍삼달임액과 보밀절편홍삼으로 구성된 ‘담을 세트(10만 5000원)’가 좋다. 또 홍삼을 자주 즐기는 홍삼 마니아에게는 ‘홍삼정 플러스(19만8000원)’가 최고의 선물이다.

롯데주류, 백화수복

71년 전통의 맛... 대한민국 대표 차례주

롯데주류가 71년 전통의 대한민국 대표 차례주 ‘백화수복’을 비롯해 다양한 추석 맛이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오래 살면서 길이 복을 누리라’는 뜻을 지닌 백화수복은 받는 이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마음이 담긴 우리 술로, 국내 차례주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산쌀을 100% 원료로 하고 저온 발효공법과 숙성방법으로 청주 특유의 부드럽고 깔끔한 맛을 잘 살린 우리나라 대표 청주다. 쌀의 외피를 30% 깎아내 정성껏 빚어 만든 백화수복은 특유의 깊은 향과 풍부한 맛으로 차게 마셔도 좋고 따뜻하게 데워 마셔도 좋다.

명절 차례 또는 선물용 백화수복은 소비자들이 편의나 용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700ml, 1L, 1.8L 등 3가지 용량의 제품으로 구성돼 있다. 소비자 가격은 일반 소매점 기준으로 각각 5200원, 7000원, 1만1000원이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71년 전통의 백화수복은 조상들이 사용하던 대로 엄선된 쌀로 정성껏 빚은 대표 차례주”라며 “가격도 5000원대에서 1만원대까지 다양한 경제적인 제품인 만큼 명절 아침 온 가족이 함께 차례를 지내고 마시기에 좋은 술”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최고 품질의 쌀을 52%나 깎아내고 특수효



모로 장기간 저온 발효해 청주 특유의 맛과 향이 그대로 살아있는 최고급 수제 청주 ‘설화’, 엄선된 쌀을 100% 원료로 해 저온에서 3차례 발효시켜 깊고 그윽한 맛이 일품인 순미주 ‘국향’, 국내산 왕매실로 만든 ‘설중매’ 등도 추석 맛이 선물세트로 준비됐다.

롯데주류는 주고받는 이들의 품격에 맞춘 위스키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스카치블루 선물세트’는 스카치블루 21년산, 스페셜 17년산, 인터내셔널 제품으로 가격대도 다양해 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풍성히 담아낼 수 있도록 했다.

롯데칠성음료, 델몬트 주스

과일에 채소까지 건강 담은 ‘국민주스’

롯데칠성음료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풍성히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주스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이번 롯데칠성음료 추석 선물세트는 국내 주스 브랜드 ‘델몬트’ 제품 중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제품으로 구성해 만족도를 높였다.

‘델몬트 주스 추석 선물세트’는 9000원대부터 1만 3000원대의 부담 없는 중저가 세트로, 명절 분위기를 담은 고급스러운 포장재를 사용해 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만족을 준다.

델몬트 병 선물세트는 명절마다 인기가 많았던 베스트셀러 제품 위주로 구성했다. 다양한 구성의 프리미엄 주스를 넉넉한 1L 용량으로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오렌지·포도·사과 3본입 세트’와 ‘프리미엄 오렌지·포도·제주감귤 3본입 세트’를 포함해 제주감귤 100%를 사용해 제대로 된 감귤주스의 맛을 낸 ‘제주감귤주스 3본입 세트’ 등 3종으로 구성됐다.

1.5L 페트는 한국의 미가 물씬 풍기는 보석함 느낌을 살려 포장재를 고급스럽게 꾸민 ‘오렌지·포도·망고·토마토 4본입 세트’와 단아한 고급 보자기 모양의 선물상자에 담긴 ‘포도·매실·제주감귤 4본입 세트’ 2



종이 있다.

이밖에도 프리미엄 오렌지·포도·망고·감귤 주스 제품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마실 수 있게 180ml 소용량 병으로 구성된 ‘델몬트 소병 12본 세트’ 2종도 명절 분위기를 뽐낼 담은 포장재로 인기몰이할 것으로 보인다.

델몬트 주스는 지난해부터 소비자의 변화된 식생활을 반영해 야채과일 시리즈 ‘일일 야채, 야채과일’, 믹스 파즙 ‘애플&망고’, 파립 타입 ‘망고 코코’ 등 새로운 카테고리의 주스 제품을 적극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동원F&B, 건강 선물세트

참치캔·연어캔·리챔... 골라먹는 재미

동원F&B는 참치캔, 연어캔, 김, 홍삼,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건강’ 콘셉트의 식품들로 구성된 추석 선물세트 200여종을 선보였다. 간관 제품인 참치, 캔햄 선물세트의 경우 2만~3만원대 실속 세트와 함께 5만원 이상의 고가 세트까지 다양하게 구성했다.

참치세트로는 최고 인기세트인 동원류나리챔 100호, 참치캔, 리챔, 카놀리유 등 다양한 제품이 혼합된 동원 스페셜 5호 등이 올 추석 시즌 주력 세트다. 또한 우유리챔이 들어간 동원혼합 96호, 우유리챔 10호와 같은 우유리챔세트도 내놓았다. 특히 올 추석에는 최근 출시한 ‘동원 건강한 참치’ 3종이 포함된 선물세트를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고급 연어 어종인 ‘코호 연어’로 만든 동원연어를 담은 프리미엄 ‘동원연어 명작세트’와 고급 캔햄 리챔으로만 구성된 리챔세트 6호, 들기름김과 카놀리유가 혼합된 양반김 혼합3호 등을 준비했다.

동원F&B는 홍삼브랜드 ‘천지인’과 미국 1위 건강식품 브랜드인 ‘GNC’를 중심으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세트를 마련했다. ‘천지인 6년근 홍삼정 예작(240g)’은 공장 내 별도 건립한 태양광 건조장에서 100% 자연 건조시킨 홍삼으로 만들어 맛이 깊고 빛깔이 살아있다.



이번 추석에 새롭게 선보이는 ‘천지인 비전(秘傳)’은 양질의 6년근 홍삼 농축액과 한국양봉협회에서 인증한 100% 천연 밤꿀을 담은 제품이다. 대표 제품인 ‘천지인 메가사포니아 골드’는 홍삼 제품으로는 특이하게 캡슐 속에 홍삼 한 뿌리에 해당하는 사포닌을 담았다.

GNC에서는 최근 언론에서 섭취의 중요성이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100억마리 프로바이옥스 ‘멀티스트레인 프로바이옥스 콤플렉스’와 해조류에서 추출한 ‘스피루리나’가 각각 1병(90캡슐)씩 들어 있는 ‘GNC 온가족 건강세트’를 선보였다.

국순당, 우리 술 세트

차례음식 안주삼아 가족들과 반주 한 잔

국순당은 우리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기존 인기 품목인 ‘예담’, ‘자양강장’, ‘법고창신’ 선물세트 외에 ‘본초’ 등 실속있고 다양한 우리 술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차례전용 술 예담은 선물 받는 이의 만족도가 높은 명절 최고의 베스트 셀러 제품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차례·제례 전용주로 예법에 맞게 전통 방식으로 빚은 100% 순수 발효주이다.

전통 발효주 특유의 연한 황금빛 색과 은은하게 느껴지는 사과와 배향, 발효주의 부드럽고 적당히 풍부한 맛이 조화를 이뤘어 시각·후각·미각을 모두 만족하게 한다.

목 넘김 후 뒷맛은 부드럽고 깔끔해 명절 가족들과의 반주에도 어울린다. 우리 차례 음식들과도 잘 어울리고 부드럽고 맛이 좋아 음복례에도 안심맞춤이다.

차례를 지낸 후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1800ml(1만1000원) 대용량 제품과 1000ml(6800원), 700ml(5000원) 등 용도에 따라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용량의 제품이 있다. 알코올 도수는 13%이다.

명절 시즌 최고의 인기 선물세트인 자양강장 세트는 2만원대부터 6만원대까지 다양하게 마련됐다. 동의보감 5대 처방전의 주요 재료로 빚은 ‘자양백세주’와 각종



국제회의 공식 건배주와 세계 식품박람회 수상으로 인정받은 ‘강장백세주’, 전통 증류주인 ‘백옥주’로 구성됐다.

국순당이 새롭게 선보이는 ‘본초’ 선물세트는 복분자, 상항버섯, 인삼 등 좋은 국산 재료를 약초마다 가장 적합한 제법으로 빚어 향과 맛이 풍부한 전통주다.

법고창신은 일제 강점기 등을 거치면서 잊혔던 우리 술을 국순당에서 복원한 제품들이다. ‘이화주’, ‘자주’, ‘송절주’, ‘사시통음주’, ‘청강주’ 등 국순당에서만 선보일 수 있는 복원주로 희소성과 의미가 있다.

하이트진로, 일품진로

10년 숙성 원액 100% 사용 ‘소주의 품격’

하이트진로는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소중한 분들에게 품격 높은 가치와 정성을 선물할 수 있는 10년 숙성 원액 100%의 ‘일품진로’ 추석 선물세트를 출시했다. 이번 2015년 추석 선물세트는 일품진로(375ml) 2병과 스트레이트 잔 2개, 언더락스 잔 2개로 구성됐다.

선물세트는 한정 생산돼 가치가 높으며, 명절 때마다 조기 소진돼 출시 전부터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선물세트 가격은 3만5000원으로 갤러리아 백화점 전국 매장에서 판매되며 미리 매장에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일품진로는 참나무 목통에서 10년 이상 숙성시킨 원액 100%를 그대로 사용하는 고품격 소주로, 증류식 소주만의 부드러운 맛과 목 넘김, 은은한 향, 숙취가 없는 깔끔함이 특징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지 질감의 라벨을 사용해 프리미엄 소주의 고급스러움을 강조했다. 이번엔 선보이는 추석 선물 세트는 은은한 금빛의 실크 원단과 고급스러운 질감의 상자로 정성껏 포장돼 선물의 격조를 한껏 높였다. 일품진로는 올해 들어 판매량(1~4월)이 작년 동기 대비 160% 넘게 증가했다. 출시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3대 증류품평회인 몽드셀렉션, SWSC, IWSC에서 연속으로 수상했다. 특히 몽드셀렉션에



서는 3년 연속 대상 수상 제품에만 부여되는 최고 품질 대상을 2회 수상했다.

최근 인천 국제공항을 비롯해 세계 주요 국가의 대표적 인 프리미엄 주류만 판매하는 두바이 국제공항 면세점에도 입점해 판매되고 있는 등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감사와 정성을 담은 선물을 하려는 분들에게 10년 숙성 고품격 소주인 일품진로가 그 품격과 가치를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 생활용품

엄마는 한방삼푸, 누나는 전지현 보디로션

아모레퍼시픽은 기존의 전권일률적인 추석 선물이 아닌, 취향과 기호에 맞춘 선물세트를 다양하게 준비했다.

먼저 감사의 마음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아름6호 세트'는 한방 프리미엄 삼푸 브랜드 러(麗)의 함빛 극소상케어 삼푸(200g/2개)를 비롯해 토털 헤어 코스메틱 브랜드 미장선, 토털 보디케어 전문 브랜드 해피바스, 덴탈케어 전문 브랜드 메디안 제품들로 구성돼 있다. 받는 이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후면에 하트 디자인을 삽입하고, 단상자에도 별도 디자인을 해 시각차별화를 꾀했다.

식상한 네모 박스에서 탈피한 '명품 1호, 명품 2호' 선물 세트는 인간 문화재로 지정된 자수장(刺繡匠) 한상수 장인과의 협업을 통해 품격을 더했다. 나비 날개를 형상화한 디자인에 해피바스와 미장선, 러, 메디안 등 아모레퍼시픽의 대표 베스트셀링 생활용품을 담았다.

특정 개인에 맞춘 선물세트도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향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고 자신만의 향을 갖기 원하는 트렌드에 맞춘 '퍼퓸에디션 세트'를 선보였다. '퍼퓸 에디션 세트'는 은은하고 기분 좋은 향을 더할 수 있도록 '미장선'과 '해피바스'의 대표 퍼퓸 제품들로 구성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편하게 선물하기에 좋다는 설명이다.



여심을 공략하기 위한 선물로는 '전지현 바디로션'으로 인기몰이를 한 일리의 토털에이징케어 보디세트인 '일리 1호 세트'가 제격이다. '일리 1호'는 한방 시너지 콤플렉스가 함유돼 있어 보습을 넘어 탄력과 윤기까지 케어해주는 일리의 베스트셀링 바디 제품들로 구성돼 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선물하는 사람의 정성과 마음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선물세트와 받는 사람의 취향과 기호를 고려한 아모레퍼시픽 선물세트는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올 추석 명절, 소중한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LG생활건강, 화장품

왕후·리엔세트... 대표 히트상품 한아름

LG생활건강은 올해 추석 선물세트로 브랜드별 베스트셀러와 주력 신제품을 포함시킨 구성을 선보였다.

우선 화장품 선물세트로는 '2015 한국 궁중문화 유산과 함께 하는 후' 캠페인의 일환으로 황후지보(皇后之寶) 합에서 영감을 얻은 고급 패키지의 '왕후세트를 내놔다'.

왕후세트는 최고급 프리미엄 스페셜 세트, 천기단 라인의 밸런스부터 에센스, 로션, 아이크림, 크림, 앰플까지 모든 제품을 만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아기 피부에 가장 많이 포함된 '베이비 콜라겐' 성분을 함유한 '오취 에이지라카버리 3종 세트'는 탄력 있고 부드러운 피부를 가꾸기에 좋다. 고보습 성분이 피부에 부드럽고 촉촉하게 밀착돼 매끄러운 윤기를 선사한다.

이 외에도 안티에이징 세트인 '뉴 슢37 시크린 에센스 특별 세트'와 베스트셀러인 '이자녹스 링클 포커스 세럼 기획세트', '수려한 수 전산 스페셜 기획세트' 등 다양한 화장품 선물세트를 마련했다.

생활용품 세트는 한방 세트부터 실속형 세트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면세점에서 판매하며 유키들에게 큰 인기를 끈 '리엔 윤고 더 골드'를 활용한 '리엔 2호 세트'는 자운삼푸와 보양진 삼푸 등이 포함돼 모근 강화와 탈모



방지에 효과가 있다.

'자연을 담은 오가니스트 삼푸 세트'는 트렌드에 맞춘 삼푸세트 라인이다. 최근 자연 느낌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오가니스트 삼푸를 활용한 선물세트가 마련됐다. 제품이 흰색 들어다보이는 포장에 홀로그램 디자인을 입혀서 독특한 자연 느낌이 나도록 했다는 평이다.

이 외에도 퍼퓸 제품을 주력으로 한 '사랑스런 향기세트', 상자형으로 풍성함을 나타낸 '명작 2호 세트' 등 다양한 선물세트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애경, 생활용품

장애인 작가와 국내 첫 디자인 콜라보

생활뷰티기업 애경이 올 추석을 맞아 기업이념인 '사랑(愛)과 존경(敬)'의 의미를 더한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다가오는 민족 최대 명절 추석에 사랑하는 가족, 친지, 소중한 분과 함께 감사와 힐링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다. 애경은 이러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명절 때마다 단순히 주고받는 형식적인 선물이 아닌, 작은 선물 하나에도 사랑과 존경의 의미를 담아 선물의 가치를 높은 추석선물세트를 출시했다.

애경은 추석선물세트에 국내 최초로 청각장애 캘리그라퍼 송은주 작가와 발달장애 화가 신동민 작가 등과 디자인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다. 2015 애경 추석 선물세트에는 장애인 작가와 디자인 콜라보를 확대해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상생 기반을 조성하는 등 가치와 의미를 담은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희망세트'는 종합선물세트로 어머니와 고국에 대한 애뜻한 서정이 담긴 윤동주 시인의 '별 헤는 밤' 시구를 손으로 그린 그림문자로 소통하는 송은주 작가의 캘리그라피로 디자인해 선물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고 가족과 고향에 대한 사랑과 서정적 감성을 담았다. '다정세트'는 지함형 종합선물세트로 장애인 아티스트의 작업공간 시스템 플래닛(SYS PLANET) 소속



신동민 작가의 작품을 담아 이 작품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마련했다.

'예술작품'을 담아 힐링을 선물하는 명화 선물세트도 눈길을 끈다. 대표적인 명화 추석 선물세트로 한 국인이 사랑하는 화가 빈센트 반고흐 '아름의 별이 빛나는 밤'과 '붓꽃이 있는 아를 풍경' 등을 선보였다.

디자인에 향기를 더한 '마릴린 먼로 콜렉션'도 추석 선물세트로 인기를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릴린 먼로의 아름다움을 연상시키는 향기를 선물세트에 담은 것이 특징이다.

금강제화, 상품권

구두에서 가방까지 남녀노소 대만족

금강제화가 추석을 맞아 주고받는 사람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선물로 금강상품권을 제안했다. 연령대나 취향에 따른 걱정 없이 모두가 만족하는 금강상품권은 매년 명절이면 손꼽히는 인기 선물이다. 금강상품권으로는 전국 130개 도시 400여개 금강제화, 렌드로바, 브루노말리 매장에서 구두, 캐주얼화, 핸드백, 골프 의류, 아웃도어 의류, 신사복 등 다양한 상품을 편하게 구입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금강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있는 브랜드와 상품이 꾸준히 늘고 있어 받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금강상품권은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다양한 권종으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금강상품권 외에도 전국 금강제화 매장에서는 다양한 추석 선물을 만날 수 있다. 남성을 위한 선물로는 리갈 고어텍스 서라운드 신사화와 브루노말리 엔리코 가방이 좋다. 리갈 고어텍스 서라운드 신발 외파에 고급 소가죽을 사용하고, 내파와 편칭 처리된 바닥창에는 방수, 투습 기능이 뛰어난 고어텍스 멤브레인 소재를 적용해 쾌적함이 유지된다. 브루노말리 엔리코 가방은 고급스럽음이 느껴지는 크로크 옴보



소재로 제작되어 품위와 멋을 중시하는 도시 남성의 면모를 제대로 표현해준다.

여성을 위한 선물로는 르느와르 스튜디오의 아베스 펌프스를 추천하고 싶다. 고급스러운 이탈리아 수입 가죽으로 만들어진 아베스 펌프스는 깔끔한 디자인에 미리 콤비가 시크한 가을 분위기를 연출해 줄 뿐 아니라 다양한 착장에 포인트로 매치가 가능하다.

핸드백 선물을 원한다면 브루노말리 아티스틱A를 추천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질감과 광택이 살아나는 베지티블 가죽을 사용해 세련된 멋이 한층 살아 있으며, 신체에 밀착되는 부분에 독자 개발한 커브라인(CURVE LINE)을 적용해 완벽한 피팅감을 제공한다.

농협홍삼, 한삼인

6년근 국내산 홍삼...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한 삶에 대한 현대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모님과 직장상사, 지인들을 위한 선물세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건강도 챙기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에 더없이 좋은 선물은 홍삼이다.

농협홍삼 한삼인은 추석을 맞이해 다양한 구성의 선물세트를 판매하고 있다.

부모님을 향한 마음을 담은 '한삼인 홍삼정프라임 효'와 '한삼인 홍삼정마일드 삼'은 엄선된 6년근 국내산 홍삼만을 사용한 농축액 세트 제품이다.

면역력 증진과 피로 회복,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등 홍삼의 5가지 기능성을 모두 담아 섭취할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이다.

매년 완판을 기록하는 농협홍삼의 대표 선물세트인 '한삼인 프리미엄선물세트'와 '한삼인 연홍세트'는 추석 전부터 많은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한삼인의 대표 제품들을 다양한 구성에 실속 있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들의 구매 욕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홍삼 흑마늘진액', '홍삼 녹용진액', '홍삼 원기진액'은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힌 홍삼 음료제품이다. 6년



근 국내산 홍삼 농축액에 국산 흑마늘과 녹용 등을 넣어 만들었다. 농협홍삼의 노하우로 정성스럽게 만들어낸 제품으로 구매자는 선물받는 사람의 기호에 맞춰 준비하면 된다.

농협홍삼 한삼인 제품은 농협홍삼 한삼인 공식 쇼핑몰과 한삼인 전국 가맹점, 한삼인 브랜드가 입점된 각종 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현재 농협홍삼 한삼인의 제품을 최대 2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추석 행사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농협하나로마트, 우리농축산물

전국 명산지서 엄선 '신토불이 농축산물'

농협하나로마트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과일과 한우 등 우리 농축산물 추석 선물세트와 사과, 햇밤 등 차례용품을 특별 할인 판매한다.

우선 행사기간 동안 농협은 대표 브랜드인 '뜨라네', '아침마루' 과일세트를 3만원대의 실속형부터 10만원대의 명품세트까지 다양하게 준비했다.

뜨라네 세트는 사과, 배, 사과-배 혼합 세트 등 여러 가지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대구, 문경, 풍기, 무주 등 전국 유명 사과산지의 사과와 나주, 천안, 아산 등 유명 배산지의 배로 구성됐다. 최고의 상품만을 엄선했 매과 품격까지 만족시키는 선물세트로 규격에 따라 가격은 5만~13만원대로 구성됐다.

특이한 과일 선물 세트를 원한다면 농협의 '명인명작' 상품이 있다. 제주 유일의 망고 생산농가에서 생산하는 '왕 망고' 선물세트는 당도 15브릭스(brix) 이상, 개별중량 750g 이상의 고당도 특대 상품으로 구성됐다. 9월 한 달만 공급 가능한 국내 유일 망고산지에서 명인 김만국씨가 생산하는 고품격 선물세트로 가격은 10만~11만원대다. 이 외에도 아몬드 버섯, 꽃감, 목우촌 햄 선물세트, 식용유, 차약, 삼푸 등 다양한 선물세트를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아울러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 농산물 차례용품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만난다. 선물 고르기가 고민인 소비자를 위해 전국 농협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농촌사랑상품권 전국 2100여개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또한 특판 기간 동안 농협하나로마트 구매고객에게는 △농협카드 결제 고객에 대한 최대 1만원 추가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금액별 최대 100만원까지 농촌사랑 상품권 증정 △일일금액 이상 구매고객 무료 택배 서비스 등 풍성한 혜택이 제공된다.

동아제약,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우리 가족 면역력 동충하초로 높이자

동아제약은 올 추석 명절 선물로 '현미 동충하초'를 이용한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동충일기'를 제안했다.

현미는 단백질을 비롯해 탄수화물·비타민·미네랄 등이 풍부하고, 식이섬유와 항산화작용이 탁월한 '토포트리놀', 뇌졸중과 치매를 예방하는 '오리자놀'과 같은 기능성 성분이 들어있는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현미 동충하초는 현미에 인삼·녹용과 더불어 중국에서 3대 보약 중의 하나로 불로장생의 비약으로 여겨지는 동충하초의 균주를 접종해 만든 것으로, 동충하초의 성장 도중 생성되는 면역 증강 물질인 '코디세핀'의 함량이 높아 면역 증강 기능이 뛰어나다.

최근 NK세포(자연살해세포)를 활성화해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현미 동충하초를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이 개발돼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동아제약의 동충일기가 가족 면역력 증진을 위한 추석 선물로 제격이라는 평가다. 현미 동충하초는 지난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등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았다. 동충일기는 기존의 동충하초 제품들이 액기스·생조 또는 건조·분말 형태인 것과 달리, 알약 형태로 만들어져 먹거나 휴대하기 간편하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동충하초는 인삼·녹용과 더불어 중국의 3대 보약 중 하나로, 불로장생 및 강장의 비약으로 여겨져 왔다"며 "추석을 맞아 우리 가족 면역력 증진을 위한 선물로 안성맞춤"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현미 동충하초의 면역증진 효능을 밝히기 위해 건강한 성인 남성 78명을 대상으로 4주간 인체적용 시험을 실시한 결과, 현미 동충하초를 복용한 남성들에게서 NK세포 등 각종 인체 면역세포 활성 11%, 면역세포 증식이 27% 증가하는 것이 확인됐다.

종근당, 갱년기 증상 치료제

홍조·발한·불면증 개선 '어머니를 위하여'

종근당은 올 추석선물로 생약성분의 갱년기 증상 치료제 '시미도나'를 제안했다.

시미도나는 스위스 생약 전문회사 '젤러(Zeller)'에서 생산한 일반의약품(OTC)으로, 여성의 갱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홍조·발한·수면장애·신경과민·우울증 등 갱년기 증상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제품이다.

이 제품의 주성분은 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하는 식물인 '서양승마' 추출물로, 서양승마의 뿌리제제는 유럽에서 50년 넘게 갱년기 증상 치료에 사용되는 생약성분이다.

시미도나는 유럽 인상을 통해 갱년기 증상 개선 효과와 안정성을 유럽의약품허가당국(EMA)과 천연물의약품위원회(HMPC)로부터 인정받았다.

스위스에서는 갱년기와 폐경기 증상 치료제로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폐경은 노화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일부 여성들에게는 폐경 이행기와 폐경 후에 동반되는 증상들이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 폐경기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동맥경화증·심근경색증·골다공증과 같은 만성 질환들은 중년 여성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관리가 필요



하다.

종근당 관계자는 "갱년기에 수반되는 여러 증상들이 중년 여성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저해하고 가족들의 불안감을 높일 수 있다"며 "하루 한 알로 복용이 간편한 시미도나로 갱년기 증상에 따른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신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미도나가 월경전증후군 치료제 '프리페민'에 이어 여성 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국제약, 생약성분 잇몸약

생약성분으로 잇몸병 치료·예방 효과

이번 추석 명절에는 나이 많은 부모님들을 위한 생약성분의 의약품이 눈길을 받고 있다. 부작용이 적고, 효과와 효과를 입증받은 의약품들이 추석 선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잇몸이 급속도로 약해지는 부모님들을 위한 동국제약의 생약성분 잇몸약 '인사돌 플러스'는 대표적인 제품으로 꼽힌다.

인사돌 플러스는 동국제약이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연구팀,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생약연구팀과의 산학협동을 통해 10여 년간에 걸쳐 개발한 제품이다.

국내 최초로 특허받은 잇몸약 복합제로도 유명하다. 생약성분인 '후박나무 추출물'을 새롭게 추가해 항염·항균 효과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인사돌 플러스는 생약복합성분이어서,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잇몸병의 치료와 예방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인사돌 플러스의 후박추출물은 기초·비임상연구, 임상연구 등 다양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잇몸병을 유발시키는 치주병인균에 대한 항염·항균 작용이 입증됐다. 인사돌 플러스는 육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과 후박추출물, 두 가지 생약성분의 복합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비율(1:2)로 배합됐



몸 겉과 속에 동시에 작용한다.

또한 일반적인 잇몸병 치료·예방에 좋을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시술 전후 잇몸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건강한 잇몸뼈가 많이 남아 있을수록 임플란트 시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확률이 높아 평소 잇몸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개발에 참여했던 배기환 충남대 명예교수는 "두 가지 유효성분을 1:2 비율로 배합했을 때 잇몸병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었다"며 "이런 비율로 구성된 새로운 잇몸약인 인사돌플러스가 국민 구강건강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야쿠르트, 건강식품

홍삼 특허 발효기술로 건강 ↑ 가격 ↓

한국야쿠르트는 추석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브이푸드 비타민세트와 홍삼 제품군에 대해 '건강식품 특별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멀티비타민미네랄, 브이푸드비타민B복합, 브이푸드비타민C로 구성돼 있는 브이푸드 비타민 세트는 20종의 야채와 과일로 만든 천연원료, 천연건조효모에서 추출한 10종의 비타민과 무기질 등으로 구성됐다.

한진생 홍삼정을 비롯한 홍삼제품군은 정가에서 10% 할인 판매하며, 천연원료로 만든 브이푸드 비타민 세트는 할인율을 20%로 대폭 높였다. 경기침체로 주머니가 가벼워진 소비자들을 위해 부담 없이 추석 선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체에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건강식품을 대량 구매하는 기업에는 구매 품목과 관계없이 최대 15% 할인이 가능하다.

이번 추석 선물로는 한국야쿠르트가 지난 1일 출시한 '발효홍삼정이지(EASY)'가 눈길을 끈다.

발효홍삼정이지는 한국야쿠르트의 특허 발효기술로 만든 제품이다. 이 기술은 'HYFRG'란 원료를 갖고, 유산균과 효소를 이용한 이중 발효 기술이다. 이 제품은 유산균과 효소 2종 발효 과정을 통해 면역 강화



심 물질인 기능성 사포닌의 체내 흡수율을 높였다.

또 발효홍삼농축액 100%에 정제수만을 혼합해 순수하고 진한 홍삼농축액을 선호하는 소비자 입맛은 물론, 포장에서도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했다. 트레드를 반영한 스틱포 타입에 하루 섭취량 10ml를 담아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이정열 한국야쿠르트 마케팅 이사는 "한국야쿠르트에서 추석을 맞아 건강식품 할인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발효홍삼정이지를 비롯한 건강식품이 소중한 사람의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국도자기, 식기·다기세트

1만원대 실속형부터... 음식의 품격 높여

한국도자기는 한가위에 실용적이고 품격 있는 추석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한국도자기 '궁' 제품은 모란꽃을 주제로 중후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또 골드라인을 더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배가시켰다. 모란은 부와 풍요를 상징한다.

'궁' 디자인은 한식기세트, 구절판, 면기, 커피, 다기세트 등 다양하게 구성했다. '초충도' 제품은 신사임당의 초충도를 재해석한 제품으로 여귀, 가지, 부용화, 양귀비 등을 주제로 전통미를 살렸다. 여기에 오방색을 이용해 고전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반상기, 전통다기, 궁중보석함, 뚜껑머그, 접시 세트 등 다양한 구성으로 출시됐다.

실용적인 제품을 찾는 젊은 세대를 위한 제품도 있다. 격식을 차리기보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는 커피잔보다 평소 다양한 음료를 담을 수 있는 머그가 어울린다고 한국도자기는 설명했다.

'컬러머그'는 레드, 그린, 블루 등 원색과 체크, 도트 등 발랄한 디자인을 컵 보디(몸체)에 표현해 어느 분위기에나 잘 어울리는 제품이다.

컬러머그는 손잡이와 테두리 부분에는 보석 컬러로 포인트를 주어 테이블에 올려두기만 해도 분위기를 화



사하게 바꿀 수 있다. 제품 박스에도 컬러를 입히고, 내부에 있는 컵이 잘 보이도록 패키징 되어 별도의 선물 포장도 필요하다.

한국도자기는 "이번 한가위 추석 선물세트는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과 평소 고마웠던 지인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다채로운 선물을 준비했다"며 "귀한 분들을 위한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가격대는 1만원대 이상 실속 제품부터 10만원대 품격제품 등 저가에서 중고가 상품까지 다양하게 구성했다.

농협목우촌, 육가공품

돼지 부위별 원형 숙성 담백한 수제햄

농협목우촌은 간편하게 요리해 즐길 수 있는 고기를 추석 선물 세트로 준비했다.

농협목우촌 추석 선물세트는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과 장관상을 수상한 100% 우리고기인 프로포그를 주원료로 만들었다. 이 제품은 까다로운 생산공정을 거쳐 매년 '베스트 육가공품 대회'에서 각종 상을 수상하는 등 맛과 품질에서 검증된 농협목우촌의 선물세트다.

농협목우촌 수제햄 선물세트는 돼지고기 본연의 맛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이 세트는 안심, 등심, 갈비 등 돼지고기 부위를 최대한 원형 그대로의 형태로 숙성하고 가공·훈제했다. 이 때문에 돼지고기 특유의 담백함이 살아있고, 전자레인지나 프라이팬을 사용해 간편히 조리할 수 있다. 수제햄 제품은 4~7개, 가격은 2만원대에서 13만원대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농협목우촌의 대표 제품들을 하나로 모은 '헬스합 선물세트'도 명절에 제격이다. 지난해에 출시돼 압도적으로 높은 고기임자로 인기를 얻고 있는 프리미엄리얼 프랑크를 주축으로 6가지 종류의 목우촌 햄으로 구성됐다. 새롭게 선보이는 리얼스트링치즈(100% 국내산 원유사용)도 들어있어 햄과 치즈를 한꺼번



에 즐길 수 있다. 가격은 4만3000원이다.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한 캔 선물세트는 매 명절마다 선물용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다.

유통기한이 길고 휴대하기 편리하며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농협목우촌의 장수 브랜드 독심(캔 햄)은 국내산 순돈육을 사용했으며 짜지 않아 밥 반찬 뿐만 아니라 간식이나 안주로 즐길 수 있다.

독심과 더불어 장조림캔, 참치캔 및 식용유를 함께 구성한 실속형 선물세트는 2만원대에서 8만원대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맛’으로 찌고 ‘멋’으로 복고... ‘쿡방’ 집에서 즐겨요

직접 써봤습니다

톡톡 품평

6

삼광글라스
SAMKWANG

톡 톡한 소비자를 위한 상품 구매 가이드인 '톡톡 품평'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판매 최상위 제품, 신제품 등을 엄선해 실시합니다. 소비자뿐만 구성된 품평단(5명)이 짚개는 일주일부터 길게는 한 달가량 제품을 사용해 보고 솔직하고 생생한 후기만을 작성했습니다. 각 품평단은 총 4개 항목에 대해 5점 만점 별점으로 제품을 평가하며 100점 만점으로 총평을 진행합니다.



시트럼 시트라벨라

베카 쿡온

삼광글라스, 쿡웨어 수입브랜드 시트럼·베카 신제품 선보여 프랑스 철주물 냄비 '시트라벨라' 고전도·저수분 요리에 적합

독일 '베카 쿡온' 실리콘 손잡이·인덕션 가능해 만족도 높아 맛·영양 살리고 디자인 세련됐지만 높은 가격·무게감은 부담



전문가 톡톡



이강아

삼광글라스 리빙사업부 상무

달궈진 팬은 식힌 후 중성세제로 세척... 물기 없이 보관하세요

매일 사용하는 생활용품 중에 주부들이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은 단연 프라이팬, 냄비 등의 조리 기구다.

특히 최근 다양한 소재와 기능의 새로운 쿡웨어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주부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다 좋은 소재와 기능의 제품을 선택해 정확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요리에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철 주물 소재의 제품은 음식을 푹 끓이거나 삶는 방식의 건강식 요리에 제격이지만, 제품의 무게감을 고려해야 하며, 세척 후 반드시 물기를 제거하고 보관해야 녹을 방지할 수 있다.

스테인리스 소재의 쿡웨어 제품은 표면이 쉽게 부식되지 않으며, 스크래치나 물리적 충격에도 강해 인기 있는 실용적인 소재다. 열 전도가 잘 안 되는 점을

◇품평 제품 : 삼광글라스의 해외브랜드 시트럼·베카 쿡웨어 = 유리 밀폐용기 브랜드 '글라스락'으로 유명한 친환경 종합주방용품 기업 삼광글라스에서 공식 수입·판매하는 53년 역사의 프랑스 쿡웨어 브랜드 시트럼(SITRAM)은 스테인리스 쿡웨어, 압력솥 등을 판매하며 세계 유명 요리 전문가들이 즐겨 사용하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그라노블 프라이팬을 비롯해, 철 주물 냄비인 '시트라벨라' 라인과 인덕션 사용이 가능한 냄비와 프라이팬인 '듀오' 라인, 그라노블 세라믹 코팅의 '캥거루' 라인을 함께 선보이고 있다.

최근 출시된 시트럼의 '시트라벨라' 라인에 레드와 블랙 컬러의 철 주물(Cast Iron) 냄비로, 레트로 풍의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이다. 몸체가 두툼해 솥밥을 비롯해 찌고 삶는 저수분 요리에 좋고, 열이 균일하게 분배되어 음식이 골고루 익고 원재료의 신선함이 유지된다. 또한 조리 중 양쪽 손잡이에 조리 도구나 뚜껑을 걸쳐놓을 수 있는 아이디어 기능도 채용했다. 디자인은 각각 21cm 원형과 28cm 타원형으로 구성됐으며, 가격은 각각 18만원과 25만원이다.

시트럼 그라노블 프라이팬은 국내 최초로 열전도율이 높고 튼튼한 알루미늄 주물에 화강암처럼 거칠고 단단한 '그라노블 코팅'(일명 화강암 코팅)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화강암을 뜻하는 'granite'(그라나이트)에서 따온 '그라노블(Granoble) 코팅'은 기존의 불소 코팅의 단점인 약한 내마모성을 보완한 볼륨분사공법을 사용한다. 이 공법으로 약 6-8겹의 단단한 코팅 막을 형성해 기존 대비 2배 이상의 코팅 두께를 자랑한다.

이 제품은 내마모성 테스트를 통해 인정받은 뛰어난 코팅 지속력으로 각종 긁힘과 마모에 강하다. 또 넌스틱(non-stick) 기능이 탁월해 기름을 적게 사용해도 음식이 잘 붙어붙지 않고 세척도 간편하다. 그라노블 프라이팬은 지름 22cm 프

이팬, 28cm 프라이팬, 22cm wok팬, 28cm wok팬 등 4종으로 구성되며, 핸들이 미끄럼 방지 실리콘 고정부가 있어 더욱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다. 가격은 3만9000~5만4000원.

삼광글라스에서 함께 선보이는 독일 쿡웨어 브랜드 베카(BEKA)는 116년 전통의 글로벌 브랜드로, 뛰어난 디자인과 주방에 최적화된 스테인리스 쿡웨어로 정평이 나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세계 유명 요리 전문가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2013년 벨기에 최고의 디자인상' 등 해외 유명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다. 국내에서는 블랙 앤 크림 컬러가 돋보이는 알루미늄 코팅 냄비 '쿡온' 라인과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포커스', '네스트' 라인을 판매하고 있다.

베카의 '쿡온' 라인은 가볍고 열효율이 뛰어나며, 세척이 간편하고 인덕션 사용까지 가능한 제품이다. 손잡이에는 탈부착이 가능한 실리콘 프로텍터가 있어 조리 중에 뜨겁지 않다. 뚜껑 안쪽의 돌기는 재료의 자체 수분만으로 음식이 촉촉하게 조리되는 셀프 베이싱(Self-Basting) 효과를 구현한다. 블랙 색상은 24cm 원형과 31cm 타원형으로, 크림 색상은 21cm 원형과 26cm 타원형 냄비로 디자인됐다. 가격은 18만3000원에서 30만7000원까지다.

삼광글라스는 최근 유럽 명품 쿡웨어 브랜드인 시트럼과 베카를 통해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디자인의 프리미엄 쿡웨어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즐겁고 맛있는 요리는 물론, 주방 수납까지 돕는 차별화된 주방용품을 통해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제품을 계속해서 출시할 계획이다.

이투데이는 9월 품평 제품으로 삼광글라스에서 최근 출시한 시트럼과 베카 쿡웨어를 다양하게 준비해 소비자 5명을 섭외했다. 평가단은 약 2주간의 체험 기간 동안 쿡웨어를 사용해 보고 평가했다.

이선에 기자 isa@etoday.co.kr

총점 9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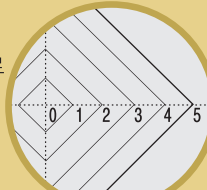
- ▶ 삼광글라스의 시트럼과 베카 쿡웨어는 각기 다른 소재와 다양한 디자인으로 용도에 따른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이 장점.
- ▶ 요리에 관심이 많아 조리하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조리기구를 사용하고 싶거나, 주방을 더욱 세련되게 바꾸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
- ▶ 냄비는 열효율이 좋아 음식이 골고루 촉촉하게 잘 익고 저수분 요리 시 맛이 뛰어나.
- ▶ 프라이팬은 요리할 때 가장 큰 고민인 음식이 잘 붙어붙는 문제를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코팅이 잘되어 있어 매일 간편하게 사용하기 좋음.
- ▶ 용량별로 가장 잘 쓰이는 아이템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한 번 구매하면 오래 두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음.
- ▶ 베카 쿡온 제품의 경우 주물이라는 제품 특성상 무게감이 있어 손목에 다소 부담이 됨.

품평단의 품평

- 소비자 5명 섭외
- 평가 항목 4개 (디자인, 기능성, 무게, 가격)
- 5점 만점 (총 100점)
- 사용기간 2주

그래프 보는 법

한가운데부터 밖으로 갈수록 측정수치 커짐 (가운데는 0점, 가장 외곽은 5점)



김인영
(35세·워킹맘)

디자인: W가격, W기능성, W무게

간략 코멘트

인덕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제품을 찾고 있었는데, 베카 쿡온 냄비는 알루미늄 코팅으로 가볍고 세척도 깔끔하게 잘되어 활용도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럼 시트라벨라 냄비는 주방에 계속 두고 보여주고 싶은 빈티지한 디자인이 특이해 마음에 쏙 들었어요. 시트럼의 그라노블 프라이팬은 처음 접하는 일명 '화강암 코팅' 제품인데, 이름처럼 튼튼하고 벗겨짐이 없어 스트레스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희
(33세·주부)

디자인: W가격, W기능성, W무게

간략 코멘트

베카 쿡온 냄비와 시트럼 시트라벨라 냄비는 주부들이 좋아할 만한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색깔이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 두 제품 모두 사용해 보니 압력솥처럼 열이 잘 분배되어 음식이 골고루 잘 익고 수분이 유지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구입이 많은 대신 가격대가 조금 높은 편이지만, 믿을 수 있는 소재의 트랜디한 쿡웨어를 찾는 분들께 딱 맞는 제품이에요. 함께 사용한 시트럼 그라노블 프라이팬은 홈쇼핑 방송에서 눈여겨봤던 제품인데, 정말 기름 없이도 계란 프라이가 붙어붙지 않아 신기했습니다.

박지연
(29세·주부)

디자인: W가격, W기능성, W무게

간략 코멘트

저는 튀기거나 굽는 요리보다 삶거나 찌서 먹는 걸 즐겨요. 그런 면에서 베카 쿡온 냄비는 셀프 베이싱(Self-Basting) 효과로 음식이 촉촉하게 조리되어 좋았어요. 꼭 큰 냄비가 아니더라도 갈비찜같이 어려운 요리도 소량으로 간편하게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길을 끌었던 건 요리 중간에 국자를 손잡이에 살짝 걸러놓을 수 있는 뚜껑 디자인인데, 요리할 때 가장 불편했던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 감동이었어요. 시트럼 그라노블 프라이팬은 한 번만 사용해도 코팅력이 좋은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설거지할 때 막간은 무게감이 느껴져 아쉬웠습니다.

남주연
(40세·워킹맘)

디자인: W가격, W기능성, W무게

간략 코멘트

평소에는 주로 세라믹 코팅 냄비를 많이 써 왔는데, 이번 기회에 다양한 소재의 쿡웨어를 사용해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베카 쿡온 냄비는 콤팩트한 디자인과 함께 손잡이 부분의 실리콘 프로텍터까지 신경 쓴 것이 마음에 들었고, 시트럼 시트라벨라 냄비는 톡톡 튼는 레드 컬러가 요리를 즐겁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잡채랑 오징어볶음을 유난히 좋아하는데, 시트럼 그라노블 프라이팬은 특히 워펜이 둥글고 깊어 이 같은 요리를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확실히 무게로 화강암 코팅이라 음식물이 잘 붙어붙지 않는 것 같아요.

이혜나
(32세·주부)

디자인: W가격, W기능성, W무게

간략 코멘트

베카 쿡온 냄비는 평소에도 사용하던 다른 주물 냄비에 비해서는 무게가 가벼운 편이어서 사용하기 편했습니다. 다만 제품을 돌려줄 때 약간의 묵직한 느낌은 있었습니다. 처음 주물 냄비를 사용한다면 다소 무게감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 주물 냄비를 써 보고 싶었지만 가격 때문에 망설였지만, 시트럼 시트라벨라 냄비를 추천해요. 합리적인 가격에 세련된 디자인이 신혼 주방에 사용해도 어울릴 것 같은 제품입니다. 시트럼 그라노블 프라이팬은 마치 돌같이 생긴 표면이 신기해 일부러 끓여 보기도 했는데 단단한 느낌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세척 또한 깔끔하게 잘되는 것 같아요.



‘신성통상’ ‘누리텔레콤’ 실적날개 달고 훨훨

베스트&워스트 9월 7~11일

◇신성통상, 호실적에 급등 = 14일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신성통상은 지난주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으로 꼽혔다. 신성통상은 주초 1420원이었던 주가가 41.90% 상승한 2015원을 기록했다.

신성통상은 6월 결산법인으로 지난 사업연도 실적에 크게 개선됐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다. 신성통상은 당해사업연도(2014년 7월 1일~2015년 6월 30일)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84억원으로 전년 대비 46.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보다 10.4% 늘어난 8584억원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이익은 215.6% 증가한 68억원에 달했다.

이더 디지털 전자 가전업체인 남성이 지난 한 주간 37.86% 급등하며 주가 상승률 상위 종목 2위에 이름을 올렸다.

햇택의 지난주 주가 상승률은 27.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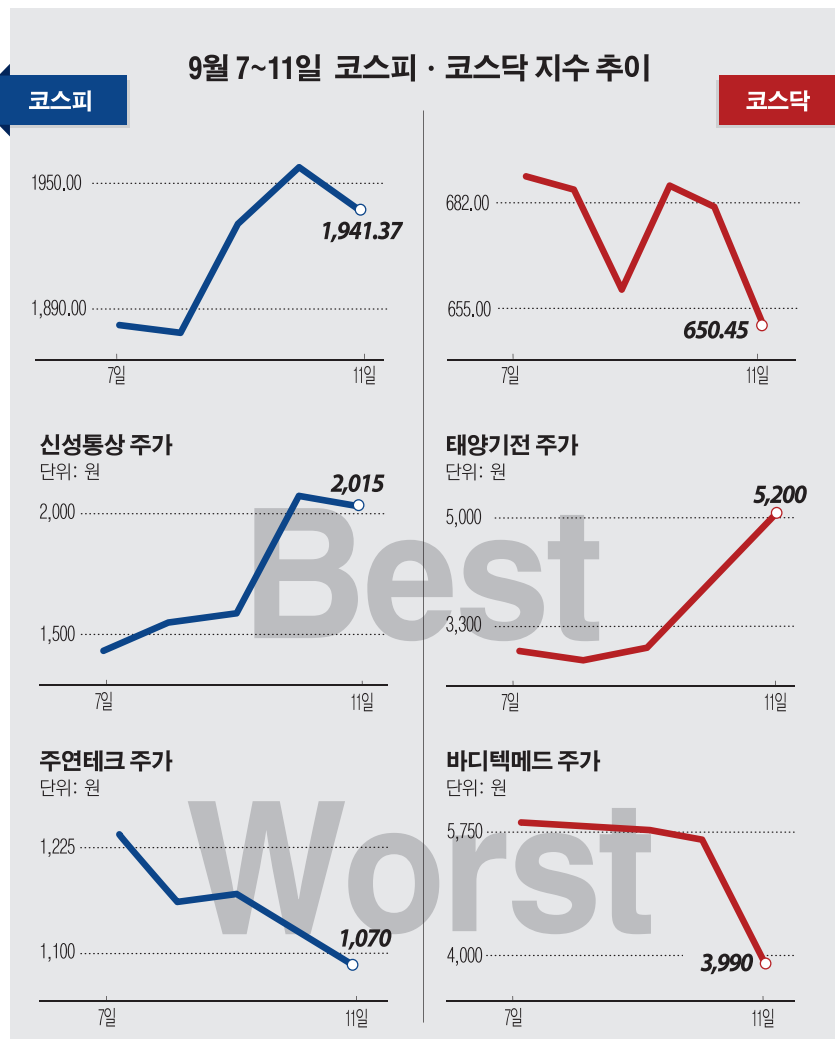
떨어지며 주가 하락률 1위 종목으로 꼽혔다. 주연테크는 9월 첫째주 우리로에 피인수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했으나 상승률이 이내 하락 반전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급락했다. 지난주 주가 하락률은 무려 17.36%에 달했다.

미래에셋증권은 1조2066억6382만원 규모의 유무상 증자를 실시한다고 지난 9일 공시했다. 유상증자는 보통주 4395만 8600주를 발행하는 주주배정 방식으로, 발행 예정가는 2만7450원으로 신주는 올해 11월 19일에 상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당 0.3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도 실시한다.

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래에셋증권이 전날 결정한 1조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는 내년 주당순자산(BPS)과 주당

9월 둘째주(7~11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보다 55.33포인트(2.93%) 오른 1941.37로 마감했다. 주 초반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지수가 소폭 하락했으나 중반 들어 중국 정부의 재정 부양책 발표로 인해 상승했다. 후반부에는 오는 16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다시 하락했다.



코스피 상승 10종목

종목명	11일 시가 총액	증가(원)	증가(%)	주가등락률(%)
신성통상	290	1,420	2,015	41.90
남성	77	1,545	2,130	37.86
햇택	152	4,110	5,240	27.49
두산중공업	2,389	17,850	22,500	26.05
세우글로벌	50	1,690	2,110	24.85
모나미	71	3,100	3,780	21.94
KC그린홀딩스	208	7,700	9,250	20.13
성신양회	329	11,750	14,000	19.15
대한유화	1,079	139,500	166,000	19.00
LG상사	1,157	25,150	29,850	18.69

코스피 하락 10종목

대림통상	94	6,790	6,190	-8.84
에스원	3,287	95,300	86,500	-9.23
세하	31	1,720	1,550	-9.88
국동	52	12,350	11,000	-10.93
신세계건설	200	56,800	50,000	-11.97
신우	76	1,410	1,225	-13.12
세원셀론텍	178	4,495	3,895	-13.35
동원수산	44	12,600	10,900	-13.49
미래에셋증권	1,350	37,150	30,700	-17.36
주연테크	46	1,335	1,070	-19.85

※자료 : 에프엔가이드

코스닥 상승 10종목

종목명	11일 시가 총액	증가(원)	증가(%)	주가등락률(%)
태양기전	39	3,300	5,200	57.58
원풍물산	422	8,080	11,850	46.66
다들멀티미디어	27	3,145	4,230	34.50
누리텔레콤	159	10,050	13,150	30.85
마제스타	122	3,080	4,030	30.84
삼풍물산	104	5,270	6,890	30.74
에이치엘비	843	19,700	24,700	25.38
넥스틴	77	10,600	13,250	25.00
로보스타	104	10,750	13,350	24.19
파티게임즈	265	42,600	52,600	23.47

코스닥 하락 10종목

산성엘엔에스	768	49,000	42,800	-12.65
신후	29	1,485	1,295	-12.79
한국전자인증	118	6,310	5,500	-12.84
위즈코프	32	1,325	1,140	-13.96
에너지솔루션	56	4,440	3,820	-13.96
대동스틸	32	3,700	3,180	-14.05
에이텍	38	5,400	4,575	-15.28
포티스	139	8,290	7,000	-15.56
한일화학	50	19,100	14,250	-25.39
바디텍메드	837	6,030	3,990	-33.83

※자료 : 에프엔가이드

코스닥 지수는 전주 대비 19.42%(2.99%) 상승한 669.87을 기록했다. 지난주 초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약세를 보였다. 이내 중국의 경기부양책 발표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 상승세로 전환했다. 투자자별로는 기관이 947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276억원, 800억원을 순매수했다.

◇마제스타, 메르스 불황 탈피 소식에 급등 = 14일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태양기전은 이날 10일과 11일 이틀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지난주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코스닥 종목으로 꼽혔다. 태양기전은 7일 3300원에 시작한 주가가 11일에는 57.58% 상승한 5200원으로 마감했다.

누리텔레콤은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다. 누리텔레콤은 지난주 주가 상승률이 30.85%에 달했다.

누리텔레콤은 지난달 가나 전력청과 143억원 규모의 AMI시스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올해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누리텔레콤의 3분기 실적은 163억원, 영업이익 39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4.5%, 33.3% 증가해 실적 리바운드에 전망된다.

마제스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인한 영업 난황이 9월 들어 정상화됐

(25.00%), 로보스타(24.19%) 등이 주가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바디텍메드, 합병상장 이슈에도 급락=바디텍메드는 NH기업인수목적2호와 합병상장 기일이 지난 11일까지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했다. 지난 한 주간 주가 하락률은 무려 33.83%에 달했다.

바디텍메드는 체외진단 분야 중 중현장진단검사(POCT)에 분야에 특화된 의료진단기기 업체다. POCT란 혈액 원심분리나 같은 별도의 과정 없이 환자가 위치한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다.

포티스는 지난주 중반까지 중국 시장 진출 기대감이 무르익으며 상승 흐름을 보였으나 지난 11일 984만주 가량의 주식이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는 소식에 오버행 이슈가 부각되며 주가가 하락했다. 지난주 주가 하락률은 15.56%를 기록했다.

‘마제스타’ 메르스 극복·영업 정상화 기대감 30%↑
‘바디텍메드’ 합병상장 이슈에도 하락1위 곤두박질
‘포티스’ 보호예수 해제로 물량폭탄 우려에 15%↓

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주 주가 상승률은 30.84%다.

마제스타는 8월 말부터 지난 7일 현재까지 카지노의 입장객 수가 900여 명을 기록하며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특히 마제스타가 영업 정상화와 고객 다변화를 기반으로 올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목표 세운 점은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제스타 관계자는 “다양한 마케팅 기법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어닝서프라이즈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티게임즈는 지난주 주가가 23.47% 상승했다. 정부가 온라인 고스톱 웹 플랫폼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원풍물산(주가 상승률 46.66%), 다들멀티미디어(34.50%), 삼풍물산(30.74%), 에이치엘비(25.38%), 넥스틴

위즈코프는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물량 부담 우려에 지난주 주가가 13.96% 떨어졌다. 위즈코프는 지난 8일 발행주식 총수의 5.94% 규모인 167만3360주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된다고 공시했다. 상장 예정일은 오는 22일이다.

한국전자인증은 지난주 주가 하락률이 12.84%를 기록했다. 주중 삼성전자와 애플이 인간의 사고방식을 본뜬 ‘인공지능(AI)’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으나 하락 반전했다.

신후는 사업다각화 노력에도 지난주 주가 하락률이 12.79%에 달했다. 신후는 지난 8일 엔터테인먼트사업을 하는 키로이 컴퍼니 주식 34만2000주(지분율 19%)를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1.07%에 해당한다.

주가 고공비행하던 산성엘엔에스는 올해 3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주가가 하락했다. 산성엘엔에스의 지난주 주가 하락률은 12.65%였다. 김유진 기자 eugene@

결연(結緣) 존연(尊緣) 수연(隨緣)

인연을 맺고, 인연을 존중하고, 인연을 따르자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 신뢰의 리더십 박정희와 박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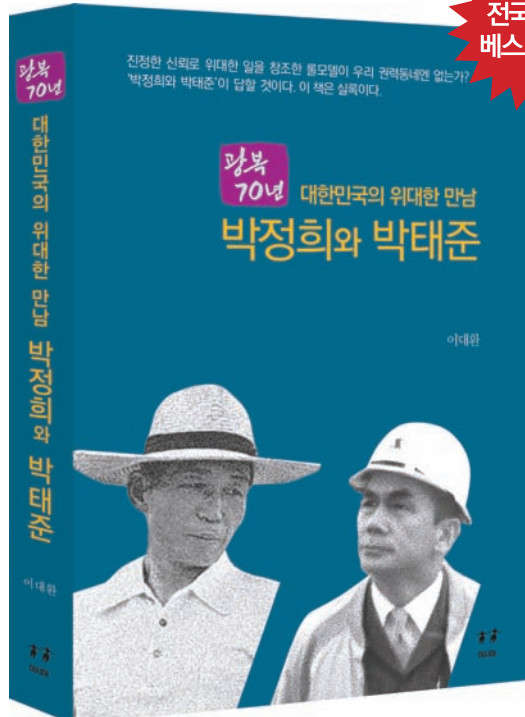
“나는 임자를 잘 알아, 이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어떤 고통을 당해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기 한몸 희생할 수 있는 인물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 아무 소리 말고 말아 임자 뒤에는 내가 있어. 소신껏 밀어붙여봐.”
- 청와대에서, 1967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불초 박태준, 각하의 명을 받은 지 25년 만에 포항제철 건설의 대역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삼가 각하의 영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 박정희 대통령 유택 앞에서, 1992년 10월 박태준 회장

“제철소가 있어야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일념과 기획과 의지에 의해 포항제철이 탄생했고, 그분은 저를 완전히 믿고 맡겼을 뿐만 아니라, 온갖 정치적 외풍을 막아주는 울타리 역할도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 2011년 9월 19일, 박태준의 생애 마지막 연설에서

진정한 신뢰로 위대한 일을 창조한 롤모델이 우리 권력동네엔 없는가?
‘박정희와 박태준’이 답할 것이다. 이 책은 실록이다.

중국 고사의 사자성어에 익숙한 우리에게 언젠가 박정희와 박태준은 신뢰에 대한 한국 고사의 단골로 불려나오며 ‘쌍박일심(雙朴一心)’ 같은 사자성어로 거듭날 것이다.



이대환 저음
국판 변형 | 472쪽 | 값 17,000원

교보문고, yes24 등 전국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02-821-5055)

이 대 환 산 문 집

프란치스코 교황 그리고 무지개



국판 변형 양장 | 296쪽
값 15,000원

“새들아, 모이를 더 먹기 위해 부리나 발톱으로 형제들을 공격하지 마라. 어린 새들과 약한 새들이 눈치 보지 않고 모이를 먹을 수 있게 해줘라.”

프란치스코 교황과 지금 여기의 우리
왜 나는 ‘박태준’ 평전을 쓰는가?
내 안에 걸린 무지개
6·15와 6·25
평화주의자들의 독배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남을 것인가?
천하위공의 길, 박태준의 길
강(江)에게 쓰는 편지
통영의 딸 구하기, SNS는 뭐하나
소설의 특권은 무엇을 할 것인가?

계산은 심플하게 삼성페이로, 삭!

어디서 무엇을 하든
카드 결제 되는 곳이라면 빠르고 안전하게!

SAMSUNG pay 삼성페이



삼성전자 S'골드러시 삼성 페이로, 삭! 런칭이벤트

(2015년 8월 20일 ~ 2015년 9월 30일)

하나. 놀라운 오천원의 행복 둘. 행복한 만원의 캐시백

※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http://store.samsung.com> 을 참조해주세요

※ 삼성 페이의 보다 자세한 사용법과 혜택은 www.samsung.com/sec/samsung-pay 에서 확인하세요

삼성페이콜센터 1588-7456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

제휴한 카드사의 개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가능합니다 (※ 2015년 8월 기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하나카드는 추후 지원 예정 ※ 일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카드사나 매장 사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Hyundai Card

LOTTECARD

NH농협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citi

하나카드

SAMSUNG